

Issues in Development

개발과 이슈

제80호 | 2024. 5월

전후 재건 경험을 통한 KOICA의 우크라이나 지원방안 고찰



한국국제협력단은 글로벌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대한민국의 개발협력 대표기관으로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의 인권 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 및 우호협력 관계 증진,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개발과 이슈』는 국제개발협력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과 최근 연구 및 정책을 소개하여 국내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발간되는 비정기간행물입니다. 본 연구의 내용은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식적인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 자료는 KOICA ODA 전자도서관(lib.koica.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 연구보고서에는 제3자에게 권리(저작권)가 있는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 이용 허락은 사용자가 권리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해야 하며,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출처와 집필자 명시하에 인용이 가능하며, 아래와 같이 표기 바랍니다.
고요한 · 김수진. 2024. “전후 재건 경험을 통한 KOICA의 우크라이나 지원방안 고찰” 개발과 이슈, no. 80.

※ 본 자료는 KOICA 도서관 홈페이지(<http://lib.koica.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저자

고요한 _ 한국국제협력단 ODA연구교육원 과장 / yohanko@koica.go.kr

김수진 _ 한국국제협력단 ODA연구교육원 대리 / sujinkim1020@koica.go.kr

전후 재건 경험을 통한 KOICA의 우크라이나 지원방안 고찰

목차

연구 요약

I. 서론

II. 우크라이나 현황 및 재건 계획

가. 피해현황

나. 우크라이나 정부의 재건복구 노력: 국가재건회의
및 국가복구계획

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제사회간의 공동 노력

III. 타 재건 사업에서의 교훈

가. 열 가지 주요 교훈

나. 소결

IV. 타 공여국의 지원 전략

가. EU

나. UN

다. 미국 (USAID)

라. 독일 (BMZ/GIZ)

V. 우리나라의 지원 전략

가. 한국의 對우크라이나 ODA 지원 전략

나. 전후 발굴된 KOICA 신규사업들

다. 타 공여국/공여기관과 KOICA의 분야 비교 및 소결

VI.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요약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며 많은 인적 물적 피해를 남기고 있다. 세계은행이 우크라이나 정부, 유럽연합, 유엔과 함께 발간하고 있는 ‘긴급 피해 규모 및 수요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전후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 2023년 12월 기준 4,860억 달러로 예측되고 있다. 장기화되는 전쟁으로 재건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평화협상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제사회는 재건을 위한 다양한 논의의 장과 조정 플랫폼을 마련하여 전쟁이 발발한 당해부터 지금까지 재건에 대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우크라이나 재건이 본격화되면 재건 사업을 위한 많은 자금들이 국제사회로부터 우크라이나로 유입될 것이다. 한국 또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빠질 수 없는 이해관계자가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이에 국제사회의 과거 전후 재건 사업 경험을 살펴보고 우크라이나에 적용할 만한 교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타 공여국 및 공여기관의 우크라이나 지원 방향에 대해 분석한 뒤 KOICA의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에 대한 제언을 도출하였다.

과거 재건 사업 경험으로부터는 국방 및 안보 부문 강화, 정부 거버넌스 운영 역량 및 책무성 강화, 전후 재건을 위한 민간부문 투자 촉진, 인적자원 활용 및 교육시스템 복구, 난민 및 국내실향민의 재통합, 지역 및 시민사회의 재건 과정 참여, 여성 및 여아 참여 강화, 통합적 접근과 지속가능한 자원 조달, 다자간 조정 메커니즘을 통한 재건 의사결정 및 정치적 문제 인식 필요, 모니터링 및 데이터 확보라는 열 가지의 교훈을 확인하였다. 또한 타 공여국 및 공여기관의 우크라이나 지원 방향을 살펴본 결과, 교육을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재건 사업의 주요 분야로는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과 전쟁 이전에 세운 개발 목표를 전쟁이 난 현재에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전쟁이라는 긴급 상황에 필요한 개발수요를 잠정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전략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개발협력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곳은 오랫동안 협력관계를 이어온 EU와 미국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제 막 우크라이나 사무소를 개소하고 사업을 시작한 KOICA는 우크라이나 국가협력전략과 국가지원계획에 맞춰 사업을 발굴하고 실행하고 있지만 전쟁 상황이 전략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현재 CP 방향과 일치하면서 세계은행이 제시한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 원칙을 고려하여 우크라이나 지방정부의 운영 역량 강화 지원, 민간 부문 투자 촉진 환경 구축, 교육 시스템 재건을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후발주자의 한계를 고려하여 다자 채널 또는 양자기관과의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재건 사업의 상호의존적인 특징을 살려 정치·사회·경제를 모두 고려한 통합적인 재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기획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자원 조달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I. 서론

2022년 2월에 시작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쟁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복구 및 재건에 필요한 비용이 2023년 12월 기준 4,862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한편, 전쟁이 진행 중임에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빠른 전후 재건을 위한 국가재건회의(National Council for the Recovery of Ukraine from the War)를 2022년 4월에 설립하고 7월에 국가복구계획(Ukraine's National Recovery Plan)을 발표하였다. 국가복구계획은 재건 사업 추진 방향을 크게 회복력 강화, 복구 추진, 현대화 지향으로 두고 있으며 재건을 위해 15개 세부 이행 과제를 도출하였다.

국제사회 또한 2022년과 2023년 두 번의 우크라이나 재건회의(Ukraine Recovery Conference)를 스위스 루가노와 영국 런던에서 개최하였으며, 2024년 세 번째 회의를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기존의 두 회의가 우크라이나 재건 복구의 원칙과 방향, 과제를 제시하는 성과를 내었다면, 이번 세 번째 회의에서는 재건 과정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기대역할 및 지방자치 파트너십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크라이나 복구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공여자 공조 플랫폼(Multi-agency Donor Coordination Platform)이 2022년 12월 G7 주도로 설립되었다. 이 플랫폼은 공여국의 우크라이나 단기 재정지원 및 중장기 재건 지원을 조율하고 재건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023년 1월 첫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2024년 4월까지 총 9번의 위원회가 열렸다. 우리나라도 8번째 회의에서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MDCP에 참여하기 전부터 대통령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해왔다. 2023년 9월 G20 회의에서 24년도에 우크라이나에 3억 달러를 지원하고 중장기로 25년 이후, 20억 달러의 EDCF 자금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이보다 앞선 7월에는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면서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재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이르다는 의견이 있으나 우크라이나를 포함하여 전쟁에 관여하고 있는 나라 대부분은 재건에 대한 큰 청사진은 지금부터 계획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게다가 최근에 시작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으로 인하여 서방국가들의 전쟁피로감이 높아지고 있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평화협상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국제사회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논의는 더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원고를 통해 최근 발간되고 있는 과거의 재건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교훈 문헌들을 살펴보고, 타 공여국과 공여기관의 우크라이나 지원전략을 분석하여 향후 한국과 KOICA의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의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우크라이나 현황 및 재건 계획

가. 피해현황

우크라이나 모든 경제 부문이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며(Anhel, 2023), 이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정부 운영 차원에서의 다양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2024년 1월 기준 키예프경제대학 발표자료에 따르면, 전쟁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기반시설 피해규모는 총 1,549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기적으로 우크라이나의 피해 규모를 업데이트하는 동 조사에 따르면 전체 피해액은 지난 2023년 말 대비 인프라, 주택, 산업, 에너지, 교육, 의료시설에 대한 피해 및 파괴 규모가 확대된 결과로써, 가장 피해가 큰 부문은 주택(589억 달러), 인프라(368억 달러), 기업자산 및 산업(131억 달러) 순으로 확인된다. 아래 <표 1>은 2024년 1월 기준 우크라이나 전역에서의 산업별 인프라 피해 규모를 나타낸 표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재건 및 복구를 위해서는 향후 10년간(2024-2034년) 필요한 비용이 4,86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World Bank, 2023).

<표 1> 산업별 인프라 피해 총 추정치 (금액기준/2024년 1월 기준)

(단위: 10억 달러)

부문	직접피해액
사회 부문	
주택	58.9
교육	6.8
보건의료	3.1
문화, 스포츠, 관광	2.4
행정기관	0.5
사회부문	0.2
인프라 부문	
인프라 (도로, 교량 등)	36.8
에너지	9.0
유틸리티	4.5

부문	직접피해액
디지털 인프라	0.5
경제 부문	
기업자산, 산업	13.1
농업 및 토지자원	8.7
산림	4.5
교통	3.1
무역	2.6
금융 부문	0.04
합계	15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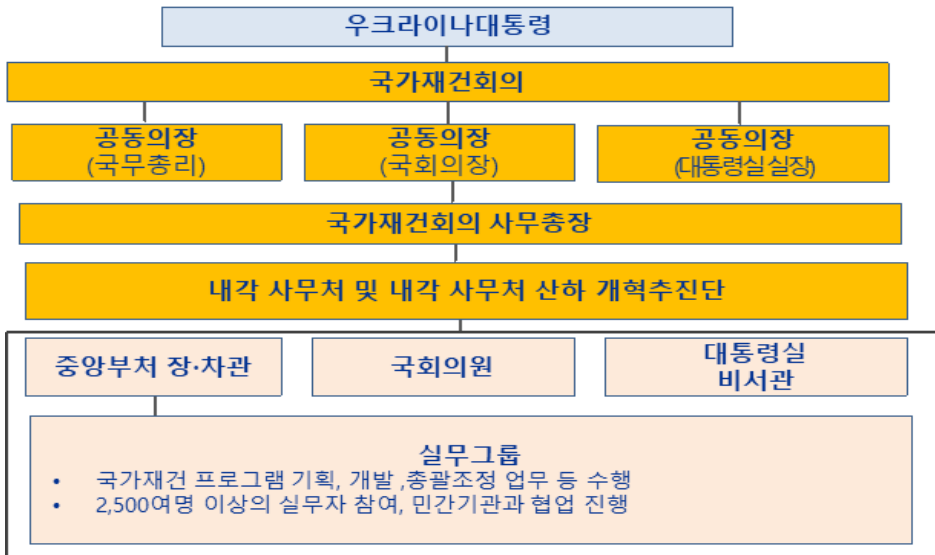
출처: 키예프경제대학연구소 홈페이지(kse.ua)

나. 우크라이나 정부의 재건복구 노력: 국가재건회의 및 국가복구계획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 침공이 발생한 이후 자국의 빠른 전후 회복 및 EU 통합을 위한 기준 충족을 위해 2022년 4월 21일 대통령 2022-266호에 의거하여 대통령 산하 자문기구 성격의 국가재건회의(National Council for the Recovery of Ukraine from the War)를 설립하고 국가복구계획(Ukraine's National Recovery Plan, 이하 URP)을 수립하였다.

먼저 국가재건회의의 경우 △전후복구와 개발계획 수립, △개혁 과제 발굴, 수립 및 이행 준비, △과제 이행을 위한 규정 수립, 채택, 시행을 핵심 업무로 하며, 이를 위해 아래 <그림 1>과 같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공동의장 및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내각사무처, 중앙부처, 지방정부 등이 세부과제를 수립 및 이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또한 동 이행과제 수립 과정에서 국제기구, 시민사회기관 등도 실무그룹으로 참여하여 협업이 가능토록 하였다. 한 달에 2회 이상 정례회의를 개최하며 과제 결정은 과반수 이상의 회의위원 참가와 참가자의 과반 이상의 찬성을 통해 확정된다.

<그림 1> 국가재건회의 조직도



출처: NRC 2022

그리고 2022년 4월 국가재건회의에서는 재건사업 추진을 위한 3대 방향과 15개 과제 및 각 과제별 필요 자금 규모를 산출한 국가복구계획(URP)을 발표하였다. 동 계획에서는 △회복력(Resilience) 강화, △복구(Recovery) 추진, △현대화(Modernization and Growth) 지향을 3대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15개 과제를 아래 <표 2>와 같이 도출하였다(NRC, 2022). 또한 동 계획에서는 과제 추진 단계를 △전시경제(2022), △전후경제(2023-2025), △신경제(2026-2032) 세 단계로 설정하고 15개의 세부 과제를 각 단계별로 배분하였다. 하지만 동 계획을 수립하던 2022년 4월 당시에는 2022년 연내 또는 2023년 중에는 전쟁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2023년부터는 전후경제를 가정하였으나, 2023년이 지나 현재까지도 전쟁은 진행 중이며, 양측간 평화협정 체결 분위기도 없는 상태이다. 이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2023년 7월, 전시경제의 지속상태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복구 중심 지원 계획을 추가적으로 밝혔다. URP에서 제시한 복구 비용이 최소 7,5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전쟁이 예상보다 장기화됨에 따라 그 복구 비용 또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체 복구 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주택 및 기반 시설, 물류 운송, 에너지 순으로 나타난다.

〈표 2〉 URP 내 15개 주요 프로그램 및 예상 복구비용

(단위: 10억 달러)

구분	분야	주요 이행 내용	복구 비용
전략적 필수 (전시)	1. 국방 및 안보 강화	국방부문 현대화, 방위산업 육성 확보	50
	2. EU 통합을 위한 노력	EU가입조건 충족을 위한 제도개선 작업, 시장접근성 확보 등	1
	3. 깨끗하고 보호된 환경의 재건	EU 녹색산업 정책에 부응하는 지속성장 가능 환경 구축	20
	4. 에너지 자립과 그린코스	EU-우크라이나 가스저장소 연결 등 통합에너지시스템 복원력 강화, EU의 제로 탄소에너지 체제로의 전환	130
활성화 요인 (전후)	5. 사업환경 개선	규제간소화, 세무 및 관세 서비스 강화, 효과적인 노동 시장 및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FDI 유치를 위한 투자 촉진기관 강화 등 비즈니스 환경 개선	5
	6. 자본에 대한 경쟁력있는 접근성 보장	긴급자금 지원, 대출확대지원, 국가/공여기관 대상 보증 설정, 전쟁보험 도입 등 자금조달에 대한 경쟁력 있는 접근성 보장	75
	7. 거시금융 안정성 확보	재정적자, 은행시스템 안정성 보장, 건전한 부채수준 유지 등 거시금융 안정성 확보	80
변환 엔진 (신경제)	8. 부가가치가 있는 경제부문의 발전	글로벌 트렌드, 그린딜, 철강, 기계 제작(방위 및 항공 우주 포함), 농업, 목재, 건설, IT 등 경제의 부가가치 부문 성장	50
	9. EU와의 물류 확장 및 통합	도로 및 교량 재건, 철도, 하천, 도로 등 공급망 증설, 1435 철도 추가 건설, EU로의 통로 확장 등을 통한 EU와의 물류 병목 현상 해소 및 EU 통합 지원	160
	10. 지역주택 및 기반시설의 복원 및 현대화	대규모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 새로운 도시계획 파일럿을 중심으로 한 주택 신축 및 인프라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실시, 전기, 난방 및 수도시스템, 디지털을 포함한 유틸리티 개선	250
	11. 사회기반시설의 복원 및 현대화	파괴된 인프라 전반 복구, PPP 프로젝트 확대 등	35
	12. 교육 시스템 발전	EU 교육법제 수용, R&D 역량강화, 과학기술단지 조성 등	5
	13. 의료 시스템 현대화	보건의료 재정개혁, 디지털의료 체계강화 등	5
	14. 효과적인 사회정책 보장	정부지원금 시스템 개선, 연금 시스템 개선 등	7

구분	분야	주요 이행 내용	복구 비용
변화 엔진 (신경제)	15. 문화 및 스포츠 시스템 개발	인적자원 개발	20
합 계			750

출처: 우크라이나 복구 계획 홈페이지(recovery.gov.ua)

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제사회간의 공동 노력

1) 긴급 피해 규모 및 수요 평가 (Rapid Damage and Needs Assessment)

세계은행(World Bank),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 국제연합(United Nations, 이하 UN) 및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쟁 발발 이후 피해 규모를 조사한 보고서인 긴급 피해 규모 및 수요 평가(Rapid Damage and Needs Assessment, 이하 RDNA) 보고서를 꾸준히 발간하고 있다. KOICA 우크라이나 사무소 근무 직원과의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장기화되는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복구계획의 단계별 세부과제 이행으로 전환이 어려워지게 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공여국들은 URP보다는 매년 진행되는 RDNA 발표 결과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재건복구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RDNA는 2022년 처음 발표되어 2024년 4월 현재 세 번째 보고서(RDNA3)가 발표되었으며, 공동 분석을 통해 피해 규모 업데이트 및 연도별 재건 복구를 위한 연도별 우선 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RDNA3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제시한 URP 내 15개 주요 과제와 재건 복구 분야 우선순위 수요를 함께 고려하여 아래 <표 3>과 같이 2024년 우크라이나 복구 및 재건을 위한 우선순위 과제를 도출하였다.

〈표 3〉 RDNA3 내 2024년 복구·재건을 위한 우선순위

번호	우선 분야	중점 지원 내용
1	에너지 분야	송·배전선 복구 및 수리, 재생에너지 개발 및 전력망 보호 등을 통한 전력 생산량 복구 및 송전 안정화 등 포함
2	운송 분야	도로, 철도, 교량, 항만, 국경 등 통과 및 우편서비스의 복구 및 재건을 포함하여 내부 및 국경간 연결 등 포함
3	주택 및 공공서비스	주택 수리, 중앙난방 및 기타 필요 지자체 서비스 복구, 에너지 효율, 상수도 및 위생 서비스, 폐기물 관리 서비스 등 포함
4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학교 및 보건 시설의 수리, 재건 및 서비스 복구 포함한 사회·문화 인프라 및 서비스 제공 등 포함
5	산업 및 서비스	산업 및 상업, 농업, 관광 등 민간부문에 대한 주요 지원을 포함하여 각 부문별 투자 위험 제거 및 무역 증진 등 포함
6	다부문	지뢰제거, 통신·디지털 및 사이버 보안, 비상대응 및 시민보호, 민주주의, 정의, 인권 등을 포함한 범분야 과제 포함

출처: World Bank 2023

또한 RDNA3에서는 이러한 우크라이나 재건복구를 위한 2024년의 우선지원 분야를 이행하는 데 있어 우크라이나의 광범위한 개혁 가속화, 재건을 위한 민간자금 조달 강화,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포용적인 재건 등에 우선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먼저 우크라이나 정부의 개혁 가속화와 관련하여, 우크라이나의 복구 및 개혁 의제, EU 통합 의제 등에서는 파트너 기관의 재정적, 기술적 지원과 함께, 정치적, 전략적, 기술적 수준에서 우크라이나 정부의 강력한 정부 주도 조정 구조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에 성공적인 복구 및 재건, 그리고 EU 통합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민간부문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 구축 차원에서의 제도개혁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정책 환경이 마련될 때 재건을 위한 민간자금 조달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국제금융공사(IFC) 평가에 따르면 2024년 초 현재의 우크라이나 정책 환경에서는 상업부문(농업, 상공업, 은행업)과 주택 부문에서 비교적 쉽게 민간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World Bank, 2023). 이는 아래 <표 4>의 민간부문에서 동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분야와도 일치한다. 하지만 향후 개혁 의제가 가속화되고 EU 및 국제시장과의 통합이 심화될수록 인프라 부문에서의 민간 부문의 역할이 보다 증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의 전반적인 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자본투자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재건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취약계층의 수요를 반영한 사회 보호 프로그램 운영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복구계획의 핵심이기도 하다. RDNA3가 투자 우선순위를 주택재건, 에너지, 사회 인프라, 인도주의적 지뢰 제거, 생계 및 지역경제 개발 지원 등이라고 언급한 것 또한 이러한 지역사회 중심의 접근방식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표 4〉 RDNA3 내 2024년 복구·재건 우선순위별 및 재원출처별 추정기여액

(단위: 백만 달러)

번호	우선 분야	합계(a+b)	공공부문(a)	민간부문(b)
1	에너지 분야	2,656	2,656	-
2	운송 분야	2,334	2,334	-
3	주택 및 공공서비스	5,578	3,078	2,500
	주택	4,616	2,116	2,500
	중앙난방	159	159	-
	지자체 서비스	247	247	-
	에너지 효율성	258	258	-
	폐기물 관리	56	56	-
	물 공급 및 위생	242	242	-
4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2,440	2,440	-
	교육	1,193	1,193	-
	보건	873	873	-
	문화	6	6	-
	사회적보호	369	369	-
5	산업 및 서비스	11,593	3,593	8,000

번호	우선 분야	합계(a+b)	공공부문(a)	민간부문(b)
	산업 및 상업	9,114	3,114	6,000
	농업 비즈니스	2,435	435	2,000
	관개	44	44	-
6	다부문	1,486	1,186	300
	지뢰제거	492	492	-
	비상위기대응 및 시민보호	272	272	-
	민주주의, 정의, 인권	22	22	-
	통신 및 디지털	400	400	-
	총합	26,287	15,287	11,000

출처: World Bank 2023, 48

* 공공부문은 1)공공 및 SOE 투자, 2)보조금, 보증 및 기타 재정 지원, 3)기 공공지출 부문으로 구성되며, 민간부문은 1)민간 투자추정액, 2)민간운영자금추정액으로 구성됨. 상세 내용은 RDNA3의 p.48을 참고하기 바람.

2) 우크라이나 재건회의 (Ukraine Recovery Conference)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가차원의 정부 협의체 운영 뿐만 아니라, 다른 공여국 및 국제기구, 민간기업,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주체와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및 복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고위급 국제회의로서 우크라이나 재건회의(Ukraine Recovery Conference, 이하 URC)를 2022년부터 개최해오고 있다. 이 재건회의는 기존에 우크라이나 개혁회의(Ukraine Reform Conference)라는 이름으로 2017년부터 개최되었으며, 우크라이나 개발 및 개혁을 위한 방향을 논의하는 장이었으나, 2022년 러시아 침공 이후 개혁(reform)에서 재건(recovery)로 회의 성격이 바뀌고 명칭 또한 변경되었다.

URC는 2022년 7월 스위스 루가노에서 처음 개최되었으며, 당시에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주요 과제들을 논의하고 재건 복구를 위한 7대 원칙으로서 루가노 선언을 채택하였다. 이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복구계획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우크라이나 재건 계획 수립 및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전쟁의 지속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정부의 기존 복구계획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복구 비용이 증대되자, 2023년 영국 런던

던에서 개최된 제2차 URC에서는 복구비용 충당 및 효과적 운영을 위한 민간부문의 참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표 5> 참조).

올해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3차 URC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역량강화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는 RDNA3에서 강조하고 있는 ‘성공적인 재건을 위한 필수조건이자 충분조건으로서의 정부 주도의 공공부문 역량 강화의 중요성’이 반영된 의제로서 민간 투자 유치 및 참여의 확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운영할 공공부문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제3차 URC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성공적 재건 및 EU 통합 노력 가속화를 위한 주요한 공공부문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5〉 URC 재건회의 주요 내용

개최일시(장소)	주요 내용
2022년 7월 4~5일 (스위스 루가노)	• 우크라이나-스위스 공동 주최, EU, G7, 한국 등 참석 • 우크라이나, 국가재건계획 청사진 발표 • 루가노 선언 채택(7대 복구 원칙 제시): △파트너십, △개혁 중심, △투명성, 책무성 및 법치, △민주적 참여, △다중 이해관계자 연대, △성평등 및 포용, △지속가능성 • (의의)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의 토대 마련, 재건계획 수립 및 국제적 지원 의지 확인에 초점
2023년 6월 21~22일 (영국 런던)	• 우크라이나-영국 공동 주최, EU, G7, 한국 등 참석 •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개발펀드(UDF) 설립 계획 발표 • 공동선언 채택(재건 방향 및 과제 제시): △민간주도 복구,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쟁 보험 프레임워크 구축, △우크라이나의 혁신 발전과 녹색경제 이행 등 • (의의) 민간부문의 참여에 초점을 맞추, 국가별 구체적 지원 방안 도출
2024년 6월 (독일 베를린)	• 재건 과정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기대역할 및 지방자치 파트너십에 대한 중점 논의 예정

출처: 우크라이나 재건회의 홈페이지(urc-international.com)

3) 공여자 공조 플랫폼 (Multi-agency Donor Coordination Platform)

우크라이나 복구를 위한 국제사회의 또 다른 노력은 공여자 공조 플랫폼 (Multi-agency Donor Coordination Platform, 이하 MDCP)의 설립이다. 첫 URC에서 영국 총리가 설립 의지를 밝힌 후, 2022년 12월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공식 출범하였다. 설립 목적은 공여국의 우크라이나 단기 재정

지원 및 중장기 재건 지원 조율, 재건 계획 수립 지원이다. 회원은 G7 국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우크라이나 정부, 국제금융기구 및 신규임시회원국(한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여러 나라가 옵저버로 참여하고 있다. 플랫폼의 조직은 운영위원회, 전문가·실무그룹, 분야별 워크숍과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야에는 지뢰제거, 주거, 에너지, 핵심 사회인프라, 민간부문 활성화, 교통이 포함되어 있다. 2023년 1월 첫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2024년 4월까지 총 9번의 위원회가 열렸다. 우리나라도 2024년 2월에 열린 8번째 회의에서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참여하고 있다.

III. 타 재건 사업에서의 교훈

국제사회는 코소보, 동티모르, 남수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다양한 지역에서 전후 재건 경험을 축적해 왔다. 이러한 경험들은 각각의 국가들이 처한 독특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환경적 조건들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여기서 얻은 교훈을 우크라이나에 적용하려 한다면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과거의 다양한 재건 사업들에서 얻은 교훈들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과거 사례들의 성공과 실패를 분석함으로써, 우크라이나가 겪을 수 있는 잠재적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보다 효과적인 재건 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실질적인 교훈을 다음과 같이 10가지 주요 포인트로 요약하여 제시한다.

가. 열 가지 주요 교훈

① 국방 및 안보 부문 강화

전후 재건 과정에서 안보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아프가니스탄과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재건 사례를 보면, 안보 없이는 재건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IISS 2023). 특히 아프가니스탄 재건 경험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안보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을 설립하고 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되었다(Thier & Chopra, 2002). 또한, 냉전 이후 유럽에서는 북대서양조약 기구가 안보를 제공하여 유럽 재건을 지원하였고, 유고슬라비아 해체 이후 서부 발칸 반도에는 평화 유지군이 배치되어 안정성을 확보하였다(Ries & Shatz, 2023). 전후 재건과 관련한 여러 문헌을 보면 소형 무기 확산 통제의 필요성 또한 강조된다. 1990년대 발칸 반도 전쟁 이후, 대량으로 유통된 소형 무기가 유럽 내 테러 공격에 사용된 사례(Grillot, 2010)와 같이, 전쟁 이후 무기 확산은 지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효과적인 무기 확산 통제를 위해서는 국경 협력 강화와 법 집행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며, 물리적 차원에서의 보안과 군사 비축량을 제대로 관리하여 전시 비축물이 오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Wisotzki & Kuhn, 2022).

현재 우크라이나는 대량무기의 일반인 유통, 법적 기반 부족과 무기 저장고 관리 역량 결여, 높은 부패 수준 등으로 인해 안보 강화가 필수적이다(Darvas et al., 2024; Galeotti & Arutunyan, 2023). 이에 발칸 반도 사례처럼, 우크라이나는 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경 협력과 법 집행 역량을 강화하고, 무기 저장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Grillot, 2010; Wisotzki & Kuhn, 2022). 또한 아프가

니스탄 재건 사례와 같이, 우크라이나는 장기적 관점에서 안보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전후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유럽 재건에 기여한 사례와 같이, 우크라이나도 국제적 안보 동맹과 협력하여 안보를 강화하고 안정적 재건을 지원받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우크라이나는 전후 재건과 안보 강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이다.

② 정부 거버넌스 운영 역량 및 책무성 강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재건 경험은 정부 기관의 역량 강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Strand & Olesen, 2005). 정부의 기본 역량이 부족할 경우, 양질의 기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여 취약계층의 수요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프가니스탄 재건 과정에서 제시된 중요한 교훈 중의 하나는 현지 정부의 반부패와 투명성 확보이다. 충분한 감독, 부패 및 관리 부실은 재건 자금이 의도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버려질 위험으로 연결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Blumenthal et al., 2022). 아프가니스탄 재건 특별 감찰관 조사 과정에서 뇌물수수, 사기, 리베이트, 돈 세탁 혐의를 받은 미국 직원과 계약자가 드러났으며, 이로 인해 재건 노력의 시작부터 근본적인 감독과 투명성을 확보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Sopko(2023) 또한 부패는 아프가니스탄 재건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으며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에서도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함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당시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재건 자금의 적절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 재건 신탁 기금(Afghanistan Reconstruction Trust Fund, ARTF)과 같은 이중 통제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 시스템은 외부 모니터링 요원이 정부의 재정 사용을 검증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하고 재정 역량을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Boyce, 2007).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민주적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효과적인 참여와 분권화는 EU 통합의 필수 요건 중 하나로 인식되는 만큼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에 대한 지방정부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평가된다(Myerson, 2023). 이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EU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통합을 이루기 위해 지방분권화를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분권화에 대한 정부 의지는 URP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재건 사업에서의 지방정부의 역할은 다가오는 제3차 URC에서도 다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반부패 및 경제적 제도개혁은 효과적인 재건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EU 통합을 위한 중요한 요구사항으로 인식된다. 반부패 조치는 재건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패 및 관리 부실로 인한 재건 자금의 낭비를 방지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부터 EU 통합을 위한 개혁 노력을 지속해서 해오고 있었으며, 이에 정부의 역량강화, 반부패, 경제제도 개혁, 재생에너지 촉진 및 환경 보호 등을 위한 제도적 개혁 노력이 국가 재건의 핵심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③ 전후 재건을 위한 민간부문 투자의 중요성

민간부문 투자는 전후 재건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많은 문헌에서는 전후 재건을 위한 민간부문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먼저, 전후 국가의 민간부문 참여의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바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마셜플랜이다. 1948년 미국이 시작한 동 플랜은 주로 공적 자금으로 시작되었지만 이후 민간은행의 대출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OECD, 2008). 이 계획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경제를 재건하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전후 재건 과정에서 민간 자본이 경제성장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사례로 평가된다(Leibtag, 2024). 또한 Wessel 과 Asdourian(2022)은 이라크 재건에서 경제 다각화 실패를 지적하며, 석유에 집중된 투자가 다른 경제 부문의 성장을 억제했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투자의 다양화가 전후 경제 회복에 중요함을 강조한다. 아울러 ISE(2019)에서는 디아스포라를 활용한 투자촉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동 연구는 르완다와 콜롬비아 재건 과정의 경우 디아스포라를 활용하여 민간부문 투자활성화가 성공하였다고 평가하며, 디아스포라가 자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자본 출처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르완다의 경우는 디아스포라 뮤추얼 펀드를 설립하여 디아스포라의 예금을 모아 르완다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였으며, 콜롬비아의 경우는 디아스포라의 높은 인적자본을 활용하기 위해 국내외 콜롬비아 과학자들의 협업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활용하였다.

또한 이스라엘의 경우에서도 이러한 민간투자를 통한 성공적인 재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민간 자본을 활용하여 경제를 발전시킨 오랜 역사를 가진 국가이다. 벤 구리온(Ben-Gurion) 총리 시절에 마련된 투자 전략을 통해, 이스라엘은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하여 교통, 물 자원 등 필수 경제 부문에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였다. 이러한 전략은 이스라엘을 글로벌 투자의 중심지로 변모시켰으며, 현재 이스라엘의 첨단 기술 자금 조달의 대부분이 민간부문과 해외 투자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이스라엘 경제의 다각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IIA, 2023). 이로 인해 현재 팔레스타인과의 무력 충돌로 재건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은 민간 외국인 투자가 재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스라엘은 기존의 하이테크 산업 외에도 농업, 식량 안보, 이민자 유입과 취약 계층을 위한 주택 공급, 인프라 및 교통망 재건 등 다양한 경제 구조를 새롭게 창출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재건 필요성은 외국 민간 자본의 수익 창출을 위한 새로운 투자 기회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이다(Leibtag, 2024).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초기 공적 자금이 민간 대출을 촉진하여 경제 회복에 기여한 마셜플랜 사례는 우크라이나에서도 초기 공적 자금과 민간투자를 병행해야 함을 시사한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으며, 재건을 위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이라크 재건에서 특정 산업에 집중된 투자가 다른 부문 성장을 억제한 사례는 우크라이나의 다양한 산업에 대한 균형 잡힌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크라이나는 농업, 중공업, IT 등 다양한 산업이

혼합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고른 투자가 필요하다(World Bank, 2020). 더불어 르완다와 콜롬비아의 디아스포라 활용 사례와 같이 우크라이나 출신 디아스포라는 자국 경제에 중요한 자본 출처가 될 수 있으며, 이들의 기술과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면 민간부문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Galeotti & Arutunyan, 2023). 마지막으로 민간 자본을 활용하여 경제를 발전시킨 이스라엘의 사례는 우크라이나가 민간 자본을 통해 인프라 재건, 기술 혁신, 산업 발전 등을 추진하는 데 참고할 만한 중요한 예시를 제공한다.

④ 인적자원 활용 및 교육시스템 복구

전후 재건 과정에서 현지의 숙련된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교육 시스템을 복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의 숙련된 인적자원과 미래의 인적자원은 경제 회복과 사회적 안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파키스탄 전쟁으로 인해 1971년부터 2022년까지 파키스탄에서 의료전문가를 포함한 고학력의 숙련 인력 약 600만명이 해외로 이주하였는데 이중 총 50,110명의 의료인력이 포함되었다. 이는 파키스탄의 학계, 의료 체계, 사회경제 발전, 연구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Meo & Sultan, 2023). 이러한 경험은 인적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고 교육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사회적, 경제적 재건의 핵심요소인 미래의 인적자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후 교육 시스템 복구와 재통합이 중요하다. 시에라리온의 경우, 전쟁 후 파괴된 교육 인프라를 복구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사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성과를 달성하였다(World Bank, 2005). 또한 니카라과는 전쟁 중에도 기본 교육의 접근성을 확장하고, 국제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많은 아동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교육 시스템 복구 사례는 전후 사회 변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성공 사례로 평가된다(World Bank, 2005; 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 2024).

우크라이나의 경우, 고도로 숙련된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성인의 70%가 최소한 중등학위를 보유하고 있다(Todd et al., 2022). 그러나 참전, 피난 등으로 경제활동의 중요한 자원인 교육받은 노동력과 청년층 인구를 많이 잃었다. 2021년 기준, 우크라이나의 인구는 4,140만명이었으나 약 780만 인구가 국외로 피난을 떠났고 650만 인구가 국내 실향민이 되어 인구의 35%가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EBRD, 2023). 인적 자본은 우크라이나 회복의 기초라고 할 수 있으므로, 파키스탄 사례와 같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인해 해외로 떠난 인재들이 귀환하도록 장려하고, 이들이 재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주택, 교육, 취업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현지의 숙련된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외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노동자를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또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현

지 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아울러 전쟁으로 파괴된 교육 인프라를 복구하고,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통합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많은 학교가 파괴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며, 학생들은 온라인 교육이나 혼합 교육에 의존하고 있다(World Bank, 2023).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폭 대피소와 같은 안전 인프라를 강화하고,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개선하여 모든 학생들이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장애가 있거나 정부의 통제 밖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시에라리온과 니카라과의 사례를 참고하여 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 인프라 복구를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크라이나 내 퇴역군인들의 나이가 상대적으로 젊다는 점에서, 이들에게 평생 교육 및 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UNICEF, 2023).

⑤ 난민 및 국내실향민의 재통합

전후 재건 과정에서 난민과 국내실향민의 재통합은 사회적 안정성과 경제적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르완다에서는 제노사이드 이후 난민과 실향민을 재통합하기 위해 커뮤니티 기반의 재건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Humanitarian Practice Network, 2008; Sentama, 2009). 시에라리온의 경우, 전쟁 이후 실향민들을 위해 복구된 인프라와 주택 지원 프로그램이 이들의 재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Dorpinghaus, n.d.). 이 과정에서 USAID, GIZ 및 UNHCR 등 여러 공여기관이 커뮤니티 중심의 접근 방식을 통해 실향민들이 지역사회에 다시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USAID, 2005; GIZ, 2011; Sperl & Vriese, 2005). 이러한 다양한 재건 사례들은 난민 및 국내 실향민의 재통합 과정에서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전쟁이 시작될 당시 우크라이나 인구의 약 1/3에 해당하는 1,350만 명이 난민 또는 실향민이 되었고, 전체 인구의 35%가 적절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World Bank, 2023). 이러한 상황에서 난민과 국내 실향민의 재통합은 국가 경제, 안보, 인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르완다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우크라이나는 커뮤니티 기반의 재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난민과 실향민들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재통합되기 위해 사회적 지지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난민과 실향민들이 지역사회에 재정착하면서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시에라리온 사례를 참고하여 우크라이나는 실향민들을 위한 주택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복구된 인프라와 주택 지원을 통해 실향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한다. 한편, 유

럽 국가로 이주한 우크라이나 아동 및 청소년들은 중등 교육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귀환 장려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유럽 내 우크라이나 난민 아동 중 절반 정도가 2022-2023년도에 임시 거주 국가의 학교에 등록한 것으로 확인된다(UNHCR, 2023). 이들 학생들이 해당 국가나 다른 외국 대학에 남아 우크라이나로 돌아가지 않을 경우, 우크라이나의 인구 및 인적 자본 상황을 악화시키고 전쟁 후 회복 잠재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World Bank, 2023).

⑥ 지역 및 시민사회의 재건 과정 참여

과거 전후 재건 경험을 다룬 문헌들에서는 국제사회의 재건 지원 시 현지 커뮤니티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지 주민들이 재건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Friborg(2004)는 아프가니스탄 재건 사업의 교훈으로, 재건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민사회, 즉 아프가니스탄 시민들의 목소리가 배제된 점을 단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은 지방 참여와 시민 간의 연대가 강한 문화로 구축되어온 국가로, 마을위원회, 지방단체, 협의체 등의 공동체가 구성원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재건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은 다른 재건 사업에서 개선되어야 할 중요한 교훈으로 제시된다. 또한, 시민사회가 반부패 활동과 입법, 정책 개혁, 자금 배분에 대한 모니터링, 규제, 감독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한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전쟁 후 보스니아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의 NGOs 법률과 비영리 부문 관련 정책입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공지출 모니터링, 부패 사례조사, 투명성 개혁 옹호 등 반부패 이니셔티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에 기여한 사례가 있다(Apostu, 2014). 이러한 참여는 정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부패 문제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재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시민사회의 재건 참여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부패인식지수에서 유럽 40개국 중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어 부패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Ries et al., 2023). 또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인들은 정부 기관보다 자원봉사 단체와 같은 시민사회 조직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andi, 2023).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재건 과정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재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민주주의 의식을 고취시킬 것이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부패 문제를 해결하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재건 과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반부패 활동과 입법, 정책 개혁, 자금 배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⑦ 여성 및 여아 참여 강화

과거 재건 경험에서는 지역 및 시민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독려하는 데 있어 여성 및 여아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함을 강조한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조지아의 재건 과정에서는 여성들의 참여가 부족하였으며, 이는 전통적인 성 역할을 재구축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들 국가에서는 전쟁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여성들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고, 여성의 교육 수준, 기술, 의지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프로젝트들이 시행되었다(Kochladze, 2023). 이러한 사례는 양성평등 이슈가 분쟁 단계 및 전후 단계의 모든 개입 활동에서 주류화되어야 하며, 재건 계획 및 개혁 과정에서 여성과 소녀의 참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여성의 참여는 재건 과정에서 더 나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여성들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르완다 재건 과정에서는 여성의 적극적인 경제 재건 과정 참여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였다(UN Women, 2021). 또한, 여성들의 문해율이 낮은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전후 재건 과정에서 여성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한 많은 노력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교육 분야에서의 젠더간 격차가 감소하였고, 강화된 여성들의 경제적 역량이 지역사회의 재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Coleman, 2004). 이러한 경험들은 여성 및 여아의 참여가 재건 과정에서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이들의 참여가 사회적, 경제적 회복을 가속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2022년 말 기준으로 약 400만 명의 우크라이나 국민이 실향민으로 분류되었으며, 이 중 상당수는 여성과 아동이다. 이들 중 많은 여성들이 생계 유지와 자녀 양육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UNHCR, 2022). 이러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조지아의 사례에서와 같이, 재건 계획 및 개혁 과정에서 여성과 여아의 참여를 보장하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여성들이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창업 등을 통해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돕는 정책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일부의 우크라이나 여성들은 조직을 꾸려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고, 지역사회를 지원하며, 무장 저항에 참여하고 경제를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Serdyuk, 2023). 이를 발전시켜 여성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⑧ 통합적 접근과 지속가능한 자원조달

전후 재건에서의 통합적 접근은 다양한 국가 사례를 통해 강조되어 왔다. 동티모르의 사례는 프로젝트의 순차적 이행보다는 동시다발적 이행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Todd et al., 2022). 또한, 보스니아, 코소보, 아프가니스탄 재건에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재건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이 채택되었는데, 이는 상호 영역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한 영역에서의 문제가 다른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경험들이 강조하는 것은 효과적인 재건을 위해서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재건 노력을 동시에 추진하고 이들 간의 조화를 이루는 통합적 접근이 중요하다는 것이다(Call & Wyeth, 2008). 또한 전후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자원 조달 방식에서도 단기적 차원의 인도적 지원과 함께 중장기적인 차원에서의 개발 자원 조달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아프가니스탄, 르완다, 시에라리온의 재건 과정에서 세계은행은 인도적 지원보다는 경제 개발, 인프라 복구, 사회적 서비스의 재건과 같은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장기적 차원의 재원을 지원하였다(World Bank, 1998). 이러한 접근은 단순한 긴급 지원을 넘어 전후 국가들이 장기적으로 자립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 유엔 개발계획(UNDP) 등 다른 공여국 및 다자기구 또한 개발 차원의 중장기적 재원을 함께 지원한 결과, 해당 국가들은 복잡한 전후 상황을 극복하고 장기적인 회복과 발전을 목표로 한 포괄적인 재건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인도적 지원부터 재건 및 경제회복, 현대화, EU 가입에 이르기까지 4단계로 재건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순차적으로 진행할지 동시다발적으로 접근할지에 대한 현황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크라이나의 재건 과정에서도 다른 국가들의 전후 재건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든 재건 부문이 상호의존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보안, 경제 등 주요 섹터에 대한 순차적 접근보다는 계층화된 접근을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Todd et al., 2022). 또한 다른 재건 사례와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의 재건에서도 장기적인 자원 조달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국제사회의 재정적 지원은 초기의 인도적 지원을 넘어 중장기적 차원의 경제 개발과 인프라 복구, 사회적 서비스 재건을 목표로 해야 한다. UN 등 다자기구와 공여국들이 중장기적인 재원을 함께 지원하는 방식은 우크라이나가 장기적인 회복과 발전을 목표로 포괄적인 재건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⑨ 다자간 조정 메커니즘을 통한 재건 의사결정 및 정치적 문제 인식의 중요성

전후 재건의 성공 여부는 다자간 조정 메커니즘의 효과성과 현지의 복잡한 정치적 문제를 얼마나 잘 인식하고 조정하느냐에 크게 달려 있다. 전후 재건에서 공여국들이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복잡한

정치적 환경의 특성에 대해 공통으로 이해하고, 상호 간에 중복되지 않고 효과를 발휘하며 재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앙 조정 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 2차 대전 이후 유럽 재건에서 미국의 마셜 플랜은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빠른 경제 회복을 가능하게 했다(Hogan, 1987). 미국의 주도로 설립된 경제협력기구(OECD의 전신)는 재건 자금의 배분을 조정하고 중복을 방지하며 효과적인 재건을 이끌었다. 이는 중앙 조정 기구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반면, 이라크 재건은 중앙 조정 기구의 부재와 현지 정치적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지원으로 인해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러 공여국과의 협력 부족, 중복된 프로젝트,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은 현지의 정치적, 종교적 긴장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Dobbins et al., 2007). 보스니아 재건도 다자간 협력이 부족해 정치적 갈등을 완화하지 못한 사례로서, 현지의 복잡한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진행된 지원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았다(Chandler, 2000). 코소보의 유엔코소보 임시행정부(United Nations Interim Administration Mission in Kosovo, 이하 UNMIK)는 공여자들의 인도주의적 구호 및 재건 노력을 조정하며 성공적인 재건을 이끌어냈다. UNMIK는 현지의 복잡한 정치적 환경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고려한 재건 계획을 통해 여러 단계의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조정했다(Todd et al., 2022). 아프가니스탄 재건 역시 다자간 협력과 조정을 통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는 중앙 조정 기구와 정치적 문제 인식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Rubin, 2006).

우크라이나는 동부 지역의 분쟁, 러시아와의 긴장, 내부 정치적 불안정성 등 여러 요소가 얹혀 있는 가운데, 재건 사업이 본격화되면 다양한 출처와 규모의 자금이 유입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외부 지원이 현지의 정치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지 않도록 주의 깊게 계획해야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할 중앙 조정 기구가 필수적이다. 한편, 이라크와 보스니아의 실패 사례는 중앙 조정 기구의 부재와 정치적 문제 인식 부족이 재건 실패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반면, 유럽 재건, 코소보, 아프가니스탄의 성공 사례는 체계적인 중앙 조정 기구와 현지 정치적 문제를 충분히 고려한 접근이 재건 성공의 핵심임을 보여준다.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교훈을 적용하여, 다자간 조정 기구를 통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재건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에 2022년에 설립된 우크라이나 공여자 공조 플랫폼(MDCP)이 다양한 공여국의 노력을 통합하고 중복을 피하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우크라이나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건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⑩ 모니터링 및 데이터 확보의 중요성

성공적인 재건을 위해서는 사업 대상 지역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접근가능한 데이터 확보 및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주요 공여기관들은 분쟁 및 재건 상황에서의 개발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현지

상황에 초점을 맞춘 평가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기반시설이 파괴된 전후 상황에서는 모니터링이 어렵고, 이로 인해 일자리, 경제 성장, 기타 개발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아프가니스탄 재건 사례에서도 한계점으로 드러나 있다(Sopko, 2021). 이러한 경험들은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기가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인 상황으로 짧은 시간에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재건 작업을 반복 진행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효과적인 개입 방식에 대한 증거를 축적하고 확대하기 위해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여국들별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상호 평가, 연구 등을 통해 얻은 분석 결과로 수원국의 역량을 지원하며 중복지원을 줄이고 자체 학습을 지원하는데 활용해야 할 것이다. 사업 결과를 분석하고 모니터링하는 역량이 강화되면 추가 ODA를 신속하게 투입하거나 유연성을 발휘하여 진행 중인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재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분쟁 상황에서는 지원된 시설 또는 설비들이 군사설비로 오사용될 수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도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소결

본 장에서 논의한 10개의 교훈 사항은 앞서 RDNA3 보고서에서 제시한 세 가지 주요 재건 지원 방향, 즉 ‘우크라이나 정부의 광범위한 개혁 가속화, 민간자금 조달 강화, 지역사회 차원의 포용적인 재건’과 같은 맥락을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RDNA3의 원칙들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조건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재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10개의 교훈 사항과 RDNA3 기본원칙 간의 높은 정합성은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방향이 과거 재건 교훈을 잘 반영하여 설정되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소결에서는 10개의 교훈이 RDNA3의 지원 방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현 우크라이나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10개의 교훈 중 7개는 RDNA3의 기본방향에 해당하고, 나머지 3개는 ‘공여기관의 전략적 접근방식’에 따른 추가 고려사항으로 분류하였다.

아래 <표 6>은 10개의 각 교훈을 ‘우크라이나 정부의 광범위한 개혁 가속화’, ‘재건을 위한 민간자금조달 강화’,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포용적인 재건’, ‘공여기관의 전략적 접근방식’ 네 개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우크라이나의 맥락을 반영한 추가적인 고려 사항을 정리한 표이다.

〈표 6〉 전후 재건 경험을 통한 10대 교훈과 對우크라이나 적용 방안

분류	교훈	주요 내용	對우크라이나 적용 방안	추가 고려 사항
우크라이나 정부의 광범위한 개혁 가속화 [RDNA3 지원방향1]	① 국방 및 안보 부문 강화	• 국방 및 안보 부문 강화 • 무기확산 통제 및 소행무기 관리	• 국경 협력과 법 집행 역량 강화 • 국제적 안보 동맹과 협력 • 무기 저장고 관리 강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지속적 갈등으로 인해 장기적인 안보 위협에 직면. 전쟁 전부터 높은 부패 수준으로 인해 법 집행과 국방 역량 강화 필요
	② 정부 거버넌스 운영 역량 및 책무성 강화	• 현지정부의 거버넌스와 행정 역량 강화 • 현지정부의 반부패 강화	• 지방정부와 협력 강화 •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반부패 조치 • 재건 자금의 적절한 사용 보장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부패 수준을 기록. 투명성 확보와 반부패 기구의 독립성 강화 필요
재건을 위한 민간 자금조달 강화 [RDNA3 지원방향2]	③ 민간부문 투자 및 경제 다각화	• 민간부문 투자 및 경제 다각화 • 디아스포라를 활용한 투자 촉진	• 민간 투자 유도와 다양한 산업에 대한 균형 잡힌 투자 • 디아스포라의 자본과 네트워크 활용	전쟁 전에도 경제적 다양화가 미흡했음. 디아스포라의 자본과 국제 시장 접근성 확보가 필요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포용적인 재건 [RDNA3 지원방향3]	④ 인적자원 활용 및 교육시스템 복구	• 현지속려된 인적자원 활용 • 교육시스템 복구 및 아동·청소년 교육 복구 및 강화	• 타국으로 이주한 인재 귀환 장려 • 신속한 재교육 및 기술 교육 프로그램 도입 • 교육 인프라 복구	전쟁 전 우크라이나의 교육 수준은 비교적 높았으나, 전쟁으로 인한 인력 유출 심각. 교육 인프라 복구와 인재 귀환이 중요
	⑤ 난민 및 국내실향민의 재통합	• 난민 재통합 및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참여	• 커뮤니티 기반 재건 프로그램 도입 • 직업 교육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주택 지원 프로그램 강화	우크라이나는 대규모 난민과 실향민 발생. 이들의 귀환과 재통합을 위한 주택 및 생계 지원 필수
	⑥ 지역 및 시민사회의 재건 과정 참여	• 지역주민 및 시민사회의 참여와 민주적 거버넌스 강화	• 지역 지도자와 시민사회의 의사결정 참여 • 반부패 활동과 정책 개혁에 시민사회 역할 강화	전쟁 전부터 시민사회가 활발하게 활동해 왔으나, 전쟁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역량 제한. 중앙정부의 지원 필요
	⑦ 여성 및 여아 참여 강화	• 여성 및 여아의 포괄적 참여 보장 및 권익 증진	• 여성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강화 • 여성 지도자 양성 및 의사결정 참여 지원	전쟁으로 인해 여성들의 경제적 참여가 감소.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안전 보장을 위한 지원 필요

분류	교훈	주요 내용	對우크라이나 적용 방안	추가 고려 사항
공여기관의 전략적 접근방식 기태	⑧ 통합적 접근과 지속가능한 자원조달	• 다면적 재건분야 관련 통합적·동시 다발적 접근 • 긴급자금과 함께 중장기적 차원의 지속가능한 개발 자금조달의 중요성	• 통합적 접근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적 재건 동시 추진 • 중장기적 자원 조달 확보	전쟁 전에도 경제와 사회 인프라가 약한 상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설정 및 국제 협력 강화 필요
	⑨ 다자간 조정 메커니즘을 통한 재건 의사결정	• 효과적인 재건 조정을 위한 다자간 조정 기구의 필요성 • 전후 재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정치적 이슈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에 따른 전략 수립	• 중앙 조정 기구를 통한 통합적 재건 추진 • 현지 정치적 문제를 고려한 계획 수립	전쟁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성 존재. 다자간 조정 기구를 통한 중복 방지 및 효율적 자원 배분 필요
	⑩ 모니터링 및 데이터 확보의 중요성	• 정확한 데이터 수집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철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데이터 기반 재건 사업 조정	전쟁으로 인한 인프라 파괴로 데이터 수집 어려움. 기술적 인프라 구축과 정기적 평가 필요

RDNA3에서 명시한 주요 지원 방향에 따른 각 세부 교훈사항과 우크라이나로의 적용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의 광범위한 개혁 가속화’는 안보 강화와 정부 거버넌스 역량 강화를 포함한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지속적인 갈등 속에서 장기적인 안보 계획을 수립하고, 높은 부패 수준을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조치와 독립된 반부패 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Aslund, 2023). 이는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며 재건 자금의 적절한 사용을 보장할 수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전쟁 전에도 높은 부패 수준과 낮은 정부 신뢰도를 보였으므로, 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Kos, 2022; Chernovol, 2024). 이러한 개혁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조건 중 하나인 법치주의와 투명성 확보와도 부합한다(Movchan, 2023).

둘째, ‘재건을 위한 민간자금 조달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 투자가 중요하다. RDNA3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전쟁 전부터 경제적 다양화가 부족했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에 대한 균형 잡힌 투자가 필요하다(World Bank, 2023). 또한, 디아스포라의 자본과 국제시장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Aslund, 2013). 이를 위해 재건 자금을 유치하고 계약 집행을 위한 독립적 사법 시스템

을 마련해야 하며, 이는 경제성장과 재건의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민간 자금 조달은 재건 초기 공공자금의 한계를 보완하고 장기적인 경제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발발 이전부터 경제 다각화가 미흡했기 때문에, 재건 과정에서 다양한 산업에 대한 투자가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위해 요구되는 경제적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에도 중요하다.

셋째, ‘지역사회 차원의 포용적인 재건’은 인적자원 활용과 교육 시스템 복구, 난민 및 국내 실향민의 재통합, 여성 및 여아의 참여 강화, 지역 및 시민사회의 재건 과정 참여를 포함한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인해 많은 인구가 피난을 가고 인력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인재 귀환을 장려하고 교육 인프라를 복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난민과 실향민의 재통합을 위한 주택 및 생계 지원,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창업 지원 및 직업 훈련 강화, 그리고 지역사회와 시민사회의 의사결정 참여를 통해 사회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Aslund, 2013). 포용적인 재건은 전쟁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의 복원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이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전에도 교육 수준이 비교적 높았지만, 전쟁으로 인해 많은 학교와 교육 시설이 파괴된 상태이다. 이러한 포용적인 접근은 EU 가입을 위한 사회적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공여기관의 전략적 접근방식’은 다자간 조정 메커니즘과 모니터링 및 데이터 확보의 중요성을 포함한다. 전쟁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성 속에서 중앙 조정 기구를 통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중복 방지가 필요하다(World Bank, 1999; Meiners, 2024; TNH, 2006). 또한, 철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기반 재건 사업 조정을 위해 기술적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World Bank, 1998). 이러한 전략적 조정과 모니터링은 우크라이나의 재건 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건 사업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전에도 인프라와 데이터 수집 체계가 약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주요 축과 원조기관의 접근방식 상의 추가적 고려사항은 많은 원조기관들이 실제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전략을 수립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국제 사회와의 협력, 투명성 확보, 포괄적인 재건 노력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재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은 성공적인 재건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전쟁 전부터 가지고 있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EU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IV. 타 공여국의 지원 전략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DAC 회원국의 순 ODA 금액을 살펴보면 최근 5년 누적기준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은 EU이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EU는 기존에도 많은 지원을 해왔으나 22년 전쟁 발발 후 금액이 전년대비 10배 증가하였고, 두 번째로 많은 지원을 하는 미국 또한 22년 전쟁 발발 후 지원액이 전년대비 28배 증가하였다. 이러한 지원 확대 경향은 다른 DAC 회원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표 7> 우크라이나 지원 상위 6대 DAC 회원국 (net ODA, 백만달러, 실질금액)

	2018	2019	2020	2021	2022	누적
EU	377.75	453.53	1,733.15	1,180.79	11,420.19	15,165.41
미국	205.66	209.7	246.91	304.72	8,641.1	9,608.09
독일	251.49	227.32	198.96	223.66	2,150.53	3,051.96
캐나다	36.79	-119.65	-130.54	37.85	2,116.63	1,941.08
일본	5.36	0.58	-6.4	-16.16	853.33	836.71
폴란드	70.96	88.66	68.78	94.89	328.85	652.14

출처: OECD 통계 홈페이지(stats.oecd.org)

이번 연구에서 분석한 공여국 및 공여기관은 총 4곳으로 EU, UN, 미국, 독일이며, 우크라이나 지원 전략문서를 중심으로 지원 분야를 살펴보았다. EU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였으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최종목표가 EU가입인 점을 감안했을 때 우크라이나의 개발수요에 잘 대응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 UN은 <표 7>에 나오진 않았지만 한국이 다자기구를 통한 우크라이나 지원을 고려했을 때 협력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단순 지원을 넘어 재건 사업 진행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국가이며, 사실상 미국이 없으면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이어나갈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방향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독일은 G7 의장국으로 MDCP를 이끌고 있으며, 올해 URC를 개최하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가. EU

EU의 우크라이나 개발협력전략인 ‘인접국 개발 및 국제협력 다년 지원 프로그램 2021-2027 우크라이나’(Neighbourhood,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strument (NDICI) Multi-annual Indicative Programme(MIP) 2021-2017 for Ukraine)는 2014년에 양측이 맺은 연합협정(Association Agreement)과 심층 및 포괄적 자유무역지역(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에 기반하고 있다. 이 협정은 우크라이나의 제도 강화, 청렴, 투명성, 책임성 독려, 안보 강화, 경제발전 및 사회결속 배양, 인권 존중과 부패 감소를 위한 장기적이며 포괄적인 개혁 프레임워크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EU는 개별 프로젝트보다는 정책 개발과 포괄적인 개혁을 지원하는 형태로 우크라이나 지원전략을 세웠다. EU의 2021-2027 우크라이나 다년 지원 프로그램에는 다섯 가지 지원 우선순위가 나열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다. 해당 기간 동안 투입할 재원은 총 6억 8백만 유로로 계획되어 있다.

<표 8> EU의 우크라이나 지원 전략 우선순위 (2021-2027)

(단위: 백만유로)

우선순위 1 (224)	우선순위 2 (128)	우선순위 3 (96)	우선순위 4 (64)	우선순위 5 (96)
회복력있고 지속가능하며 통합된 경제	책임있는 기관, 법치 및 안보	환경 및 기후 복원력	탄력적인 디지털 전환	회복력있고 성평등하며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
연결성 인프라와 운송서비스의 효율성 개선 및 지속가능한 복합 운송 및 스마트 운송에 중점을 둔 녹색전환	행정 및 사회 서비스에 대한 시민 접근성 향상, 능력 기반, 성인 지적 공무원 채용 등 공공행정의 전반적인 성과 개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녹색전환, 온실가스 배출 및 오염감소, 에너지 효율성 증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디지털 전환 및 혁신 지원	인도주의적 지원체계 활동, 전쟁 잔재물로 인한 위험에 대처하는 정부 역량 강화, 분쟁 피해 인구 보호권 보장

우선순위 1 (224)	우선순위 2 (128)	우선순위 3 (96)	우선순위 4 (64)	우선순위 5 (96)
양질의 일자리, 더 나은 고용, 직업 교육 및 훈련을 포함한 양질의 혁신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포용적인 교육 시스템 육성	포괄적인 사법 및 반부패 개혁 지속 및 강화, 부패 감소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순환경제를 촉진 하며, 기후변화 적응 및 위험 재해 예방 지원,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과 농업, 천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 오염 감소 및 생물 다양성 강화 보호, 환경법 집행 촉진	사이버 보안 문제 해결을 통한 하이브리드 위협 대응	독립미디어의 지속가능성 강화, 분쟁 피해 주민 지원 활동, EU 시청각 미디어 법안에 부합 하는 미디어 환경 조성
	분권화 개혁을 통한 다층 거버넌스 강화			소수자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및 양성평등 보장
	통합국경관리를 통한 우크라이나 국민의 안보와 안전 보장, 국가 및 지역 위기관리 시스템 개발			코로나-19 대응, 강력한 의료시스템 구축
				통합국경관리를 통한 국경보안강화
				보안 및 이주 관리 역량 강화 및 비자 자유화 기준 이행 지원

출처: EC n.d.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과 함께 EU의 우크라이나 지원전략은 RebuildUkraine으로 대체되었다. RebuildUkraine은 집행위원회가 전쟁이 난 직후 2022년 5월 제안한 우크라이나 재건계획으로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 정부가 세운 국가복구계획을 따르는 것으로 되어있다. RebuildUkraine은 다음 네 가지의 지원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첫째, 최신의 유럽 정책과 기준에 맞춰 인프라, 보건 서비스, 주택 및 학교, 디지털 및 에너지 복원력 재건에 힘쓴다. 둘째, 행정역량과 기술지원을 통해 올바른 거버넌스와 법치주의 존중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기관의 현대화를 추구한다. 셋째, 우크라이나와

그 국민들이 EU와의 경제 및 사회 통합을 심화할 수 있도록 구조적이며 규제적인 의제를 이행한다. 넷째,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 경쟁력, 지속가능한 무역, 민간부문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우크라이나 경제 및 사회 재건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가의 녹색 및 디지털 전환에 기여한다. 이 네 가지의 방향성은 <표 9>에서 보는 바와같이 기존 EU의 우크라이나 지원전략의 우선순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

〈표 9〉 EU의 우크라이나 재건계획 방향성과 기존 우선순위 맵핑

	재건 방향		기존 전략 우선순위
1	인프라, 보건 서비스, 주택 및 학교, 디지털 및 에너지 복원력 재건	1	회복력있고 지속가능하며 통합된 경제
		3	환경 및 기후 복원력
2	올바른 거버넌스와 법치주의를 위한 국가와 기관의 현대화	2	책임있는 기관, 법치 및 안보
3	EU가입을 위한 의제 이행	5	회복력있고 성평등하며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
4	경제 경쟁력, 지속가능한 무역, 민간부문개발, 녹색 및 디지털 전환	1	회복력있고 지속가능하며 통합된 경제
		3	환경 및 기후 복원력
		4	탄력적인 디지털 전환

출처: EC n.d.; EC 2022

EU는 RebuildUkraine Facility를 새롭게 설립하고 기존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던 수단을 이곳으로 일원화하기로 하였다. 2023년 6월 집행위원회가 제안하고 2024년 4월 이사회(EC)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은 RebuildUkraine Facility는 <그림 2>와 같이 3개 주요 축(pillar)을 바탕으로 24년부터 27년까지 4년간 총 500억 유로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첫 번째 축은 390억 유로를 우크라이나 자체의 개혁 및 개발 계획에 무상과 차관을 통해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축은 80억 유로를 지원하여 공공보증을 통한 투자 위험완화로 민간 투자를 촉진하여 178억의 민간재원을 동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30억 유로를 지원하여 개혁전문가 파견을 통한 기술 지원과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Facility가 지원하는 ‘우크라이나재건계획 2024-2027’(Ukraine Plan 2024-2027)은 우크라이나 키예프 대학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 직접 수립하였으며 2024년 3월 우크라이나 정부의 승인을 받고 4월 EU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이 재건 계획은 기존에 발표한 URP의 15개 프로그램을 다시 정리하여 Facility로부터 지원받을 금액으로 24년부터 27년까지 4년간 이행할 재건 목표가 무엇이며 어떻게 달성할

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Government of Ukraine, 2024).

〈그림 2〉 EC의 Ukraine Facility 주요 내용

UKRAINE FACILITY		
Pillar 1 Support to Ukraine Plan	Pillar 2 Ukraine Investment Framework	Pillar 3 Assistance programmes
EU's support to Ukraine Plan through grants and loans Support to reforms needed for the EU accession, for recovery, reconstruction and modernisation, also supporting urgent financial needs	De-risking mechanism available to investors through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to scale up investments and crowd in new investors Support to the Ukrainian private sector	Technical assistance to the Government (EU acquis, structural reforms) Capacity building of the authorities at national, regional and local level Support to civil society

출처: EC 2023, 2

나. UN

UN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UN in Ukraine Transitional Framework(2022.9-2024.12)를 마련하였다. 이 프레임워크는 러시아의 침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영향에 대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UN의 전략적 문서로 당초 22년에서 23년까지 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24년까지 연장되었고, 기존의 유엔-우크라이나 파트너십 프레임워크(2018-2022¹⁾)와 새로운 유엔지속가능개발협력 프레임워크(2025-2029)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이 프레임워크의 가장 주요한 목표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분쟁의 영향을 받고 있는 난민을 비롯한 가장 취약한 계층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전략적 우선 순위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국민 생명구조이며, 두 번째 우선 순위는 커뮤니티 회복 및

1) 이 프레임워크에는 4개의 주요 지원 분야가 명기되어 있는데 첫째,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환경, 고용 둘째, 양질의 포용적인 서비스와 사회 보호시스템에의 평등한 접근, 셋째, 민주적 거버넌스 법치, 시민참여, 넷째, 동부 우크라이나 지역의 인간안보, 사회결속 및 재건이 그것이다.

인도적지원-개발-평화 연계(Humanitarian-Development-Peace Nexus, 이하 HDPN) 접근 방식 적용이다. 세 번째는 국가시스템이 포용적인 재건을 이행하는데 효과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국가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 중 재건과 관련있는 우선순위는 두 번째로, <표 10>에서 나온 것처럼 지뢰 조치 및 잔해 제거, 인프라 재건, 에너지와 환경, 주택, 생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활성화 환경, 사회보호, 교육, 건강 보건 분야를 지원할 예정임을 알 수 있다. 각 분야에 참여하는 UN기구들도 언급되어 있는데 적게는 4개 기구에서 많게는 11개 기구가 참여하고 있다. 두 번째 우선순위에서 목표한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24년 한해 약 16억 달러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금 조달을 위해 양자 및 다자 인도적 지원 기부자들을 활용하여 HDPN 접근법을 통한 개입을 추진하고, 비전통적 기부자 및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추진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표 10> UN 프레임워크의 전략적 우선 순위 2 상세 내용

우선순위	주요 개입 분야	참여 UN기구
커뮤니티 회복 및 넥서스 접근 방식	• 지뢰 조치 및 잔해 제거 : UXO 제거, 조사 및 평가, 지뢰 위험 교육, 국가역량 강화, 조정 및 정보 관리 강화	FAO, UNDP, UNOPS, WFP
	• 인프라 재건 : 사회 및 중요 인프라(보건소, 사회서비스센터, 교육기관, 수도 및 위생, 농업, IT, 문화유산, 지역사회 및 청소년 공간등) 재건	FAO, IOM, ITU, UNDP, UNECE, UNESCO, UNHCR, UNICEF, UNOPS
	• 에너지와 환경 : 에너지 위기 완화, 난방시즌 대비, 에너지 관리 시스템, 건물과 에너지 모니터링 도구 연결 및 에너지 효율화 기술, 에너지 시스템 수리 및 재건 지원, 친환경 복구를 향한 가속화 지원 등	FAO, IOM, UNDP, UNECE, UNIDO, UNOPS, UNEP
	• 주택 : 지속가능하고 품위있는 주택 솔루션 구현, 단독 주택 및 다층 건물 개보수 및 재건축, 도시계획지원, 사회주택, 저렴한 주택, 피해보상 등 주택 정책 지원 등	IOM, UNECE, UNHCR, UNOPS
	• 생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여성, 청년, 재향군인 및 그 가족, 사망한 재향군인 가족, 실향민 등 다양한 그룹의 생계 지원, 직업교육 및 재자격취득, 시장중심기술개발, 중소기업 중심의 비즈니스 지원, 기업가 정신 교육, 유치원 및 어린이집시설 제공 등	FAO, ILO, IOM, ITC, UN Women, UNDP, UNESCO, UNHCR, UNIDO, UNOPS, WFP
	• 활성화 환경 : 굿 거버넌스, 포용적이고 성인지적인 계획 및 예산수립, 위기 관리, 비상대비 및 대응, 지원을 위한 지방 당국의 역량 강화, 취약계층 대표 단체의 역량강화, 지역 미디어 역량강화 등	FAO, ILO, IOM, UN Women, UNDP, UNESCO, UN-Habitat, UNIDO

우선순위	주요 개입 분야	참여 UN기구
	· 사회보호 : 포괄적 아동보호 서비스, 지역사회차원은 대안적 돌봄, 젠더 기반 포력 대응 메커니즘 및 서비스, 인신매매 방지 노력 지원, 국가 사회보호 시스템 강화 지원 등	FAO, ILO, IOM, UNDP, UNFPA, UNHCR, UNICEF, WFP
커뮤니티 회복 및 넥서스 접근 방식	· 교육 : 정신 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에 대한 통합적이고 변화된 접근 방식, 사회적, 정서적 문화적 학습, 조기학습 기회, 노동시장요구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 스포츠를 포함한 생활기술교육, 교사전문성개발 및 제도적 장치 강화, 교사 연구자 및 과학자 재통합 등	ILO, UNESCO, UNFPA, UNICEF
	· 건강보존 : 모자보건 및 재활시스템, 의약품 및 예방접종 접근성, 콜드체인 시스템 강화, WASH 시스템, 모자보건 및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과 질 향상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성 및 생식 보건 서비스, HIV/AIDS 서비스 등	ILO, IOM, UNAIDS, UNFPA, UNICEF, UNODC, UNOPS, WHO

출처: UN 2023

다. 미국 (USAID)

1) 우크라이나 국가개발협력전략 (Country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이하 CDCS)

USAID의 우크라이나 개발협력전략 2019-2024는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기인 2020년에 수립 완료되었다. 이 전략은 독립되고, 민주적이며, 번영하고, 강건한 유럽의 중요가치와 결속된 우크라이나 건설을 목적(goal)으로 하고 있다. USAID는 우크라이나가 부패와 러시아의 침략이라는 실존적인 위협으로부터 더욱 안전하도록 보장하고, 혁신적인 개혁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역량과 자립의지가 향상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임을 전략 서두에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패감소, 러시아의 침략 영향 완화, 국내 거버넌스 강화,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시장주도 경제성장이라는 네 가지 개발목표를 수립하여 이행해왔다.

2024년 1월 해당 전략 이행 기간이 종료되었으나, 26년까지 이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처음 수립되었을 당시부터 ‘러시아의 침략으로 인한 영향 완화’가 개발목표(Development Objective, DO) 중 하나였으며 하위 중간목표(Intermediate Results, IR)인 ‘재통합을 위한 환경 개선’은 도네츠크와 루간스크를 포함하여 러시아의 공격에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미 러시아의 공격에 대응하는 내용이 CDCS 안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략 종료 시점에 신규 수립하지 않고 26년까지 연장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전략 내용이 달라진 부분은 없는지 비교해 보았으나, 전략 수립 당시 포함했던 우크라이나의 자립(self reliance) 지수와 로드맵만이 삭제되었을 뿐 나

머지 내용은 모두 동일하였다. 또한 후술하겠지만 전쟁 발발 후 관련 대응 프레임워크를 수립 이행하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CDCS를 신규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11〉 USAID의 우크라이나 CDCS 2019-2026 내 개발목표와 중간목표

개발목표(DO) 1	개발목표(DO) 2	개발목표(DO) 3	개발목표(DO) 4
해당분야의 부패 감소	러시아의 침략 영향 완화	국내 거버넌스 강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시장주도 경제성장
중간목표	중간목표	중간목표	중간목표
- 의료시스템 투명성강화 - 부패로 인한 경제적 영향 감소(에너지, 금융, 농업, 무역, 중소기업) - 반부패 시스템 및 활동 강화	- 재통합을 위한 환경 개선 - 경쟁시장을 통한 에너지 안보 개선 - 양질의 정보 소비 및 가용성 향상(참여적 콘텐츠, 의료 문해력) - 일반적 시민가치의 수용	- 굿거버넌스의 시민 참여 - 시민들에게 더 책임감있고 반응하는 정부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감염병 우려 감소 - 시장시스템을 통한 중소 농업기업의 생산성 향상 - 포용적이며 혁신적인 금융 확대

출처: USAID 2024

2) 기관 대응 전략 프레임워크

USAID는 22년 2월 전쟁이 시작되고 얼마지 않아 벨라루스와 몰도바를 비롯하여 우크라이나의 지원 활동을 신속히 진행할 것을 결정하였다. 미국 의회 또한 우크라이나 지원법안을 22년 3월 중순 경 바로 통과시키고 USAID가 러시아의 공격에 대응하여 우크라이나에 46억 달러를 지원하도록 승인하였다. 5월 미국 의회는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법안을 또 승인하면서 USAID에 131억 달러를 추가로 배정하였다.

USAID는 바로 다음 달인 6월에 추가로 배정받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러시아 침공에 대한 기관 대응 전략 프레임워크’(Strategic Framework for the Agency’s Response to Russia’s Invasion)수립에 착수하였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재건 계획과 USAID 우크라이나의 CDCS를 고려하여 USAID 본부 관련 부서들, 우크라이나 사무소, 우크라이나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3개월 동안 여러 반복적인 자문 과정을 거쳐 해당 프레임워크를 8월에 수립하였다. USAID 우크라이나 사무소는 우크라이나의 회복과 재건을 위한 전략적인 접근법을 이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프레

임워크 이행을 사무소의 최우선 순위과제로 삼고 있다.

프레임워크는 세 가지의 목적과 네 가지의 노력(line of effort)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가지 목적은 ‘독립되고, 민주적이며 번영하고 회복력있는 나라로써 우크라이나의 성장 촉진’, ‘미국, EU, 기타 생 각이 비슷한 나라들과의 파트너십으로 통해 얻은 혜택 강화’, ‘우크라이나인들 간, 시민과 정부간, 우 크라이나 승리를 바라는 파트너들과의 연대’이다. 네 가지 노력은 아래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크라이나 CDCS의 개발목표와 높은 수준에서 일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프레임워크는 거버 너нс, 에너지, 의료서비스라는 구체적인 지원 분야가 드러나 있어 USAID의 우크라이나 지원 방향성 을 명확하게 볼 수 있다.

전쟁 상황에서 신규 사업 발굴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지한 USAID 우크라이나 사무소는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사업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전쟁 상황의 개발 수요에 대응하기로 하였다. 2022년 4월 중순 USAID 우크라이나 사무소장은 사업 변경을 처음으로 승인하였고, 2022년 말까지 총 26 개 사업 변경을 승인하였다. 그 결과 해당 사업들의 사업비 증액과 사업기간 연장이 확정되었다. 이 들 중 7개 사업은 사업비가 90% 이상 증액되었으며, 변경된 사업들의 사업기간은 평균 21개월이 연 장되었다. 한편, USAID 우크라이나 사무소는 사업변경 승인 과정에서 사업수행기관의 역량과 과거 사업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현재 우크라이나에는 40개 이상의 USAID 사업이 약 1000여명의 사업수행파트너 직원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USAID 관계자의 인터뷰에 따르 면 우크라이나 사무소는 여전히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에 USAID 본부에서 우크라이나 파견 직원 확대를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

<표 12> 우크라이나 CDCS 개발목표와 프레임워크의 네가지 노력 맵핑

Line of Effort 1	Line of Effort 2	Line of Effort 3	Line of Effort 4
즉각적인 경제 재건과 지속 가능하고 EU지향적인 회복	불가역적 민주적인 거버넌스 달성	유럽 통합을 강화할 에너지 분야 개혁	모든 우크라이나인의 웰빙과 존엄성을 촉진할 의료서비스 개선
• (DO1)해당분야의 부패 감소	• (DO1)해당분야의 부패 감소	• (DO1)해당분야의 부패 감소	• (DO1)해당분야의 부패 감소
• (DO2)러시아의 침략 영향 완화	• (DO3)국내 거버넌스 강화	• (DO2)러시아의 침략 영향 완화	• (DO4)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시장주도 경제성장
• (DO4)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시장주도 경제성장			

출처: USAID 2023

라. 독일 (BMZ/GIZ)

독일은 우크라이나 지원 전략을 따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독일의 주요 수원국 중 하나로 2013년부터 2021년 독일의 누적 순 ODA 금액을 확인하면 우크라이나는 독일의 10위 수원국이며, 전쟁이 나던 해인 2022년까지 누적 순 ODA 금액을 확인하면 6위 수원국의 위치에 있다. 독일 경제협력개발부(BMZ)의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30년간의 개발협력역사를 통해 만들어진 단단한 파트너십과 그동안 축적한 지식을 바탕으로 전쟁 상황에서도 협력을 효율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BMZ는 현재 6개의 영역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민간부문 육성 및 고용촉진, 의료서비스 확보와 전쟁영향완화, 에너지공급 및 에너지 효율화 도시재건축 지원, 지방자치강화 및 부패퇴치, 강력한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건설, 개혁과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관한 자문이다. 이들 대부분의 사업은 국제협력공사(GIZ)와 독일개발은행(KfW)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동시에 독일은 UNICEF, 세계은행, IOM, UN Woman, UNDP, WFP 등 과도 협업하고 있다.

무상원조를 주로 담당하는 GIZ의 우크라이나를 위한 긴급지원과 장기계획 문서를 살펴보면,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BMZ의 지원 방향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개발, 회복력있는 사회, 에너지와 기후행동, 지방재건 및 굿거버넌스, 우크라이나 EU 가입 지원을 돕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을 위해서 중소기업 시장 진출 자문 및 자금 지원, 의료 및 건설산업의 새로운 전문가 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회복력있는 사회를 위해서는 의료 및 사회 서비스 제공(광범위한 의료 및 심리사회서비스), 병원재건 및 현대 의료기술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에너지와 기후행동을 위해서는 친환경적 에너지 시스템 자문, 친환경 건설 및 개보수 교육, 병원용 발전기 건축 자재를 지원하고 있다. 지방재건 및 굿거버넌스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인프라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지원을 위해 필요한 개혁(지방자치, 법치, 무역촉진, 에너지 규제 및 기후 행동) 자문, 개혁 실행에 필요한 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환경보호청 개혁, EU 표준에 따라 우크라이나 기업 제품을 인증할 수 있는 인증 기관 설립)하고 있다. GIZ는 45개 프로젝트를 560여명의 직원이 수행하고 있으며 약정액은 6억 2천 5백만 유로이다.

〈표 13〉 GIZ의 우크라이나 지원 분야

지원 분야	상세 내용
지속가능한 경제개발	중소기업 시장 진출 자문 및 자금 지원, 의료 및 건설산업의 새로운 전문가 양성 지원
회복력있는 사회	의료 및 사회 서비스 제공(광범위한 의료 및 심리사회서비스), 병원재건 및 현대 의료기술 지원
에너지와 기후행동	친환경적 에너지 시스템 자문, 친환경 건설 및 개보수 교육, 병원용 발전기 건축 자재 지원
지방재건 및 굿거버넌스	지자체와 협력하여 인프라 프로젝트 진행

지원 분야	상세 내용
우크라이나 EU 가입 지원	EU 가입지원을 위해 필요한 개혁(지방자치, 법치, 무역촉진, 에너지규제 및 기후 행동) 자문, 개혁 실행에 필요한 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환경보호청 개혁, EU 표준에 따라 우크라이나 기업 제품을 인증할 수 있는 인증 기관 설립)

출처: GIZ 2023

V. 우리나라의 지원 전략

가. 한국의 對우크라이나 ODA 지원 전략

1) 우크라이나 국가협력전략 (Ukraine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Ukraine CPS)

우리 정부는 2021년 개최된 3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우크라이나가 제3기 신규중점협력국으로 지정되면서 2022년 1월, 우크라이나 국가협력전략을 수립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발발한 시점이 2022년 2월이라는 점에서 본 CPS는 전쟁발발 직전에 수립된 바, 우크라이나 내 전쟁상황 및 재건 과제 등에 대한 분석 및 지원방안은 반영되지 못하였다.

이에 본 CPS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EU 및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등 유럽 및 서방사회로의 통합을 위해 필요한 경제성장 및 제도적 개혁에 초점을 맞춰 기존에 수립한 ‘국가 경제전략(NES-2030, National Economic Strategy 2030)’을 지원하기 위한 방향으로 수립되었다(정부부처합동, 2022). 이러한 우크라이나 내 개발수요를 기반으로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경제사회 인프라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지원’을 전략상의 추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교통, △산업, △보건위생, △공공행정 분야를 중점 협력 분야로 선정하였다.

한편, 2023년 우리 정상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계기로 발표된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는 안보지원, 인도지원, 재건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KOICA는 인도지원과 재건지원에 참여하게 되었다(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3). 여기서 특이점은 재건 지원에 CPS의 중점 지원 분야로 선정되지 않은 교육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2) 우크라이나 국가지원계획 (Ukraine Country Plan, Ukraine CP)

2021년 우크라이나가 중점협력국으로 지정되고 2022년 1월, 우크라이나 국가협력전략이 수립된 후, 코이카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해외사무소를 개소하고, 동 CPS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2022년 3월, 우크라이나 국가지원계획을 수립하였다. 당시 우크라이나 CP의 최종 확정시기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발발 직후인 바, 해외사무소가 신규 개소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현장에 대한 수요파악 및 지원 방향을 실질적으로 CP 내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기에는 시간적, 상황적 제약이 많이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²⁾. 특히 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 내 불안한 정세로 인해 각 공여국

2) 본 내용은 KOICA 우크라이나 사무소 근무 직원과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사무소의 안정적 운영의 어려움과 함께 2023년 7월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재건 및 일상 회복을 위해 추진에 착수한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의 우선적 이행 필요성 등이 더 강조되었다.

이에 현재 수립되어 있는 우크라이나 CP는 우리정부의 우크라이나 CPS 목표를 고려하되 우크라이나 전시 상황을 종합고려하여 ‘조속한 전후복구 및 재건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 국가경제전략(NES2030)의 차질없는 이행지원’을 전략목표로 수립하고, 우리 정부의 4대 중점 지원 분야에 맞추어 총 4개의 프로그램, 총 8개의 서브프로그램을 구축하였다. 먼저 프로그램 구성을 보면 크게 △경제재건을 견인하는 친환경 교통, △경제자립을 위한 비교우위 산업육성, △전쟁피해 복구를 위한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투명하고 효율적인 디지털 기반 정부행정 구현 등 총 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브프로그램을 보면 교통부문의 경우, △교통망 구축을 통한 교통물류 거점 역할 강화, △친환경 교통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산업부문 관련하여, △스마트팜 조성 및 농산물 가공기술 향상, △에너지 자립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에너지 관련 프로그램은 CPS의 중점 분야에 해당하지 않지만,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독립 및 EU 가입이라는 목표를 고려했을 때 에너지는 중요한 개혁 분야이기 때문에 CP의 프로그램에 포함되었다. 또한 보건위생 부문 관련하여 △재활의료 인프라 확충, △보건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제도 운영, 신속하고 정확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디지털 보건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공공행정 부문 관련하여서는 △전자정부 역량 강화, △관세 물류 행정 현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래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 CP에는 ‘조속한 전후 복구 및 재건 지원’, ‘경제 재건’, ‘전쟁 피해 복구’ 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세부 프로그램 내용 및 성과 등은 전쟁 발발 이전에 수립한 내용을 기반으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해외사무소를 개소하고 사업을 발굴 및 운영하는 기반을 정립하는 단계에서 전후 상황에 맞추어 우크라이나 CP 자체를 수정하기보다 현재 전시라는 위기 상황에 대한 긴급 인도적지원 및 긴급 재건복구는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실시하되, 향후 중장기적 차원에서의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 및 개혁 지원을 위해서는 개발 지원에 초점을 맞춘 CP 운영이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CP는 우리정부의 CPS 이행의 일환으로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CPS가 개정이 되어야 CP 개정도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정부의 우크라이나 CPS가 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맞추어 개편될 경우, KOICA의 CP 또한 개정될 수 있을 것이다.

〈표 14〉 KOICA 우크라이나 국가지원계획(CP) 총괄표

CP 전략목표	조속한 전후복구 및 재건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 국가경제전략(NES2030)의 차질없는 이행 지원			
수원국 정책	• (교통발전전략2030) 경제 발전 기반으로서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교통서비스 제공	• (국가경제전략2030) 농산업분야 고부가가치 식품 및 기술집약적 서비스를 공급하는 세계 일류국가 • (에너지전략2035) 사회경제의 연료 및 에너지에 대한 필요를 기술적으로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충족	• (국가보건개혁전략) 보건서비스 질 개선 및 접근성 제고	• (국가경제전략2030) 부패척결, 경제성장의 동력으로서 디지털 경제도입 및 활용 • (공공행정개혁전략2022-2025) 유럽원칙기반 시민이익을 보장하는 양질의 서비스 지향 및 디지털 국가 수립
정부 정책	• 신북방정책 (산업·인프라협력) • CPS 분야(교통)	• 신북방정책 (산업·인프라협력, 농수산분야) • CPS 분야(산업)	• 신북방정책 (K방역·보건의료) • CPS 분야(보건위생)	• 신북방정책 (디지털·그린협력) • CPS 분야(공공행정)
프로그램	경제재건을 견인하는 친환경 교통	경제자립을 위한 비교우위 산업육성	전쟁피해 복구를 위한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투명하고 효율적인 디지털 기반 정부행정 구현
프로그램 목표	• 효율적인 국가기간교통망 구축하여 경제재건 촉진 • EU-우크라이나간 교통 인프라 통합으로 교통물류 거점으로 부상 • 교통수단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1990년 대비 60% 감소 • 낙후된 도로인프라를 복구하여 인접국 대비 높게 나타나는 도로 사망률 감소	• (농산업) 기후 스마트 농업 도입 및 농산물 가공기술 향상으로 내수 및 수출경쟁력 향상, 원예 및 낙농 분야 영세소농 생산·유통역량 강화 및 소득증대 • (에너지산업)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 역량을 강화하여 에너지 대외의존도 개선, 온실가스 배출의 65%를 차지하는 에너지 분야의 노후된 인프라 현대화	• 재활의료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전쟁으로 급증한 재활의료 서비스 수요 충족 및 재활환자의 조속한 사회복귀 지원 • 보건시스템개혁의 일환으로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의료보장을 강화하고 보건의료 인력의 역량강화 • 전후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 급증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중심 디지털 보건체계 구축	• 공공부문에 만연한 부정부패 및 관료주의를 해소하여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및 투명성 향상 • 행정업무의 기능적 전산화 수준에서 벗어나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개혁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 • 흑해 항만 관세물류 행정역량을 강화하여 지중해-흑해-카스피해를 연결하는 고부가가치 환적 화물 유치 지원 및 해상운송 물류허브 육성

서브 프로그램 (성과)	1.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교통망 구축 프로그램	1. 스마트팜 조성 및 농산물 가공기술 향상 프로그램	1. 재활의료 인프라 확충 프로그램	1. 전자정부 역량강화 프로그램
	(성과) • 교통물류 거점역할 강화	(성과) • 농산업 생산성 향상	(성과) • 재활의료 서비스 품질 향상 • 재활의료기관 인프라 개선	(성과) • 정부행정의 생산성과 투명성 제고
	2. 친환경 교통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2. 에너지 자립 강화 프로그램	2. 디지털 보건역량 강화 프로그램	2. 관세물류행정 현대화 프로그램
	(성과) • 주민의 교통 접근성 및 안정성 제고	(성과) • 에너지 자립도 및 효율성 향상 •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 (2030 60% GHG 감축, 2060 탄소중립 달성)	(성과) • 신속하고 정확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보건정보 시스템 구축 • 보건정보 시스템 관련 정책/전략/제도/규정	(성과) • 관세행정 효율성 제고 및 역량강화 • 항만 관리운영 역량 강화

출처: 한국국제협력단 2022

나. 전후 발굴된 KOICA 신규사업들

21년 중점협력국으로 지정된 후 KOICA는 우크라이나 사무소를 22년에 개소하고 국가지원계획인 CP를 세우고 우크라이나를 전략적으로 지원하려고 하였다. CP프로그램 또한 CPS의 분야에 맞춰 구성을 하였으나 개소하던 해 전쟁이 발발하여 본격적으로 사업 수행은 하기 어려웠다. EU나 USAID 등에 비하면 과거 주로 연수사업과 외교부의 인도적 지원만 제공하여 짧은 역사와 적은 재원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전쟁 상황으로 우크라이나 내 한국인 입국 허용 인원이 제한되어 있다는 한계 점이 있다. 현재는 9개 프로젝트가 진행중이며, 앞으로도 추가 사업이 계속 발굴될 예정이나 사무소에는 소장과 현직 직원 포함 7명의 직원만 있는 상황이다. <표 15>은 현재 KOICA가 우크라이나에서 실시하기로 확정된 프로젝트 사업 목록으로 교통 관련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5> KOICA 對우크라이나 ODA사업 목록

	사업명(기간/예산)
1	우크라이나 키이우주 재활의료 역량강화 사업 (23-27/500만불)
2	우크라이나 미콜라이우주 전력계통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전력공급 효율성 개선 사업 (24-28/1,450만불)
3	우크라이나 정부 효율성 및 책무성 개선을 위한 디지털 거버넌스 강화사업 (24-28/630만불)

	사업명(기간/예산)
4	우크라이나 키이우-국경구간 고속철도 구축을 위한 타당성조사 사업 (24-27/800만불)
5	우크라이나 오데사-이즈마일-레니구간 철도용량 증대를 위한 타당성조사 사업 (24-26/600만불)
6	우크라이나 항공운송 안전성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한 보리스필 공항 현대화 사업 (24-28/1,400만불)
7	우크라이나 전쟁피해지역 긴급식수지원사업 (23-24/150만불)
8	IOM 지역사회 참여 접근에 기반한 보호 및 솔루션 지원을 통한 우크라이나 지역사회 제도적 역량강화사업 (24-27/796만불)
9	우크라이나 전쟁피해 아동 긴급지원을 위한 지역거점 통합지원센터 구축 사업 (23-24/125만불)

출처: KOICA 내부자료

다. 타 공여국/공여기관과 KOICA의 분야 비교 및 소결

지금까지 살펴본 네 곳의 공여기관 및 공여국과 KOICA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비교하면 몇 가지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다자기관들은 교육 분야를 지원하는 것을 우크라이나 지원 방향에 포함하고 있으나 양자기관들은 교육 분야의 지원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EU, UN, USAID, BMZ, KOICA의 우크라이나 지원 분야를 비교한 <표 16>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아마도 우크라이나의 높은 문해율로 양자기관에서는 교육분야의 지원을 기존 우크라이나 지원전략안 안에서 비중있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많은 인구, 특히 여성과 아동이 난민 또는 실향민이 된 상황에서 재교육을 위한 지원은 생계 및 양질의 일자리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UN의 제외한 나머지 공여국/기관의 전략은 지원 방향을 설정할 때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고려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목표는 전쟁 상황에서도 바뀌지 않았으며 장기적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는 22년 6월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획득했으나, 우크라이나가 향후 EU에 가입할 수 있다는 얘기가 처음 나온 것은 2002년으로 꽤 오래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EU, 미국, 독일 모두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세울 때 EU 가입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염두해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전쟁이라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최종 목표까지 도달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늘어난 것일 뿐 목표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전략을 크게 수정하지 않고 전쟁이라는 긴급 상황에 필요한 개발 수요를 적절히 대응하는 수준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전략을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EU 가입을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규제들을 도입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법, 제도, 규정 개혁과 정부의 역량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지원 방향에 공공행정

분야의 프로그램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셋째,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공여국 및 공여기관은 전쟁 전에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왔으며 그 영향력과 중요도가 매우 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우크라이나 지원 역사와 규모 면에서 KOICA는 한참 뒤에 있음을 의미한다. KOICA 우크라이나 사무소 직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크라이나 개발협력 현장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공여국 및 공여기관은 EU와 미국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표 7>에서 확인한 과거 5년 동안의 對 우크라이나 순 ODA 금액을 살펴보아도 알 수 있다. 아마도 EU는 회원국을 확대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얹혀 있으며, 미국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국가 안보 측면에서 지정학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협력관계를 오랫동안 이어온 것으로 보인다. 이제 막 사무소를 개소하고 적은 인원으로 우크라이나에서 개발 협력사업을 시작한 KOICA의 입장에서 보면 따라잡기 힘든 경쟁자일 수 있다. 그러나 관점을 전환해 EU제도와 규정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우크라이나에서의 본격적인 사업 수행에 앞서 타 기관의 협업을 먼저 고려해보는 것도 현명한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16〉 공여국 및 공여기관의 지원분야 비교

공여국/ 기관	교육	보건	기술환경에너지	농림수산	공공행정	기타	규모
EU	• 주택 및 학교	• 보건 서비스	• 디지털 및 에너지 복원력 • 국가의 녹색 및 디지털전환		• 올바른 거버넌스와 법치주의 존중을 보장 하기 위한 국가와 기관의 현대화	• EU와의 경제 및 사회 통합을 심화할 수 있도록 구조적이며 규제적인 의제 이행 • 경제경쟁력, 지속가능한 무역, 민간부문개발촉진 • 인프라	• 4년간 총 500억 유로
UN	• 교육	• 건강보건	• 에너지와 환경	• 생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 활성화 환경 • 사회보호	• 지뢰 조치 및 잔해 제거 • 주택 • 인프라 재건	• 16억달러 예산필요
미국 (USAID)		• 의료시스템 투명성강화 • 감염병 우려 감소	• 경쟁시장을 통한 에너지 안보 개선 •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 포용적이며 혁신적인 금융확대	• 시장시스템을 통한 중소기업 기업의 생산성 향상	• 부패로 인한 경제적 영향 감소 • 반부패시스템및활동 강화 • 재통합을위한 환경개선 • 양질의정보소비 및 가용성향상 (참여적컨텐츠, 의료문해력) • 일반적 시민가치의 수용 • 거버넌스의 시민참여 • 시민들에게더책임감 있고반응하는정부	• 기존+177억 달러 추가 • 40개이상 프로젝트 • 1000여명의 사업수행기관 직원들	

공여국/ 기관	교육	보건	기술환경에너지	농림수산	공공행정	기타	규모
독일 (BMZ- GIZ)		회복력있는 사회 - 의료 및사회서비스 제공	- 에너지와 기후 행동 - 지속가능한경 제개발		굿거버넌스 - 지자체 와 협력하여 인프라 프로젝트 진행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지원	- GIZ 프로젝트 : 45개 - 직원 : 560 (470/90) - 약정액 : 6억 2천 5백만유로
한국 (KOICA)		- 재활의료 인프라 확충 프로그램 - 디지털보건 역량강화 프로그램	-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교통망 구축 프로그램 - 친환경교통 시스템구축 프로그램 - 에너지자립 강화프로그램	스마트팜 조성 및 농산물 가공기술 향상 프로그램	- 전자정부 역량강화 프로그램 - 관세물류행정현대화 프로그램		15개, 1억 천 8백만 달러

VI. 결론 및 시사점

러시아 침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3년 차에 접어들었다. 초기에 많은 전문가들이 전쟁이 짧게 끝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지금은 언제 평화 협상이 시작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재건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를 비롯하여 관련 국가들 대부분은 지금부터 재건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마지막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우크라이나의 피해 현황과 재건 노력, 타 재건 사업으로부터의 교훈, 타 공여국 및 공여기관의 우크라이나 지원 방향을 바탕으로 향후 한국 및 KOICA의 우크라이나 지원 방향성을 RDNA3에서 제시한 세 가지 주요 지원 방향의 틀 안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RDNA3에서 제시하는 재건 사업의 주요 지원 방향 중 우크라이나 정부의 광범위한 개혁을 위해 정부 거버넌스 운영 역량 및 책무성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국방 및 안보 부문 강화 지원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현재 CP의 프로그램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디지털 기반 정부 행정 구현’이기 때문에 정부 거버넌스 운영 역량 지원이 현재 전략에 더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KOICA는 이미 전자정부 역량 강화라는 서브 프로그램 아래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전자정부 사업을 발굴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여 지방정부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무너진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시민들에게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역량을 갖춘 지방정부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는 반부패라는 개혁 과제 달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에서 추진해야 하는 복구 및 재건 사업의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 피해 지역의 필요와 자원을 맵핑하고, 지역 복구 계획을 시작하고, 사회 보호 및 생계 해결을 위한 지방 당국의 업무가 보다 효율적이고 디지털화된 형태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언하고, 이를 위한 공무원 대상 교육을 제공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재건을 위한 민간 자금 조달 강화와 우크라이나의 다양한 산업 발전을 위해 민간 부문 투자 촉진 환경 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 최대의 식량 수출국 중 하나로 산업구조에서 농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전쟁으로 인하여 줄어든 인구를 고려하면 전쟁 이전 수준과 같은 식량 수출을 기대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다양한 산업을 키울 수 있도록 경제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건 사업은 재원이 한정된 공공자금만으로 진행될 수 없으며, 민간 자본이 투입되어야 비로소 부족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 과거 재건 사업 사례에서 보듯이 민간 부문 투자는 경제성장에 필수적이다. CP의 프로그램이 경제자립을 위한 비교우위 산업 육성만큼 민간 자본이 우크라이나의 다양한 산업에 균형있게 투자될 수 있도록 투자 환경 및 제도를 개선하거나 자문을 제공하는 사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BMZ의 경우는 우크라이나의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들에게 전문가 포럼 개최, 교육 훈련 과정 제공, 전문가 자문 제공 등의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포용적인 재건을 위해 우크라이나의 교육 시스템이 전쟁 전의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공여국들의 우크라이나 교육에 대한 지원은 인도적 지원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사례로 살펴본 주요 양자기관인 USAID와 BMZ가 우크라이나 국가협력전략에 교육 분야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의 차별성을 형성하기에 좋은 분야가 될 수 있다. 타 재건 사업으로부터의 교훈에서 살펴보았듯이 교육은 국가 경쟁력 제고 및 경제 활성화 등 전후 재건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앞서 언급한 우리나라의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또한 교육 분야를 지원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이에 전쟁으로 파괴된 교육 인프라를 복구하고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개선하여 모든 학생들이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퇴역 군인을 포함하여 전쟁으로 생계를 잃어버린 국민들을 대상으로 평생 교육을 통한 재취업의 기회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상이 난민과 실향민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과 아동들을 고려하여 교육 분야 지원 시 반드시 이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강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접근방식 측면에서 MDCP등을 통해 다자 채널을 활용한 사업 수행 또는 타 양자기관과의 공동 사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과거의 재건 사업들을 통해 다자간 조정 메커니즘의 중요성을 확인하였고, 우리나라 또한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이미 인식하고 MDCP의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중복된 프로젝트와 비효율적 자원 배분을 해결하고 재건 사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공여국의 상호 조정을 통한 분담 또는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재건 과정에서 경제 회복, 안보 확보, 인구 경쟁력 유지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난민과 실향민을 지원하려 한다면 이에 특화되고 경쟁력 있는 다자 채널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재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려면 이를 수행할 적절한 노동력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현재 인구의 35%가 난민과 실향민으로 제대로 된 생계조차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귀환 및 재정착을 통해 적절한 인구와 노동력을 확보하려면 양질의 생계지원 프로그램이 커뮤니티 기반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현재는 KOICA가 직접 수행하는 양자 사업만 발굴되어 있지만 전쟁이 더 장기화된다면 여러 제약된 사업 환경 및 경쟁력을 고려하여, 다른 양자 및 다자기관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기화되는 분쟁으로 인해 증대되는 인도적 지원 수요를 충족하는 동시에 향후 효과적인 재건 복구를 위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재건 노력을 동시에 추구할 필요가 있다. 타 재건 사업에서 교훈에서 확인했듯이 재건의 모든 측면은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에 순차적 진행보다는 계층적 또는 통합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는 HDPN이 강조하는 개념과 같은 맥락이라고도 할 수 있다. HDPN은 인도적 지원이 생명과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충족하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중장기적인 개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과 개발이 상호 통합적 관점에서 기획되고 수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우크라이나에서 생각하는 4단계 재건은 인도적 지원, 재건 및 경제 회복, 현대화, EU 가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전쟁으로 큰 피해를 당한 동부 지역은 인도적 지원을 중심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한 서부 지역은 재건과 경제 회복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반영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사업기획 및 자원 조달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3. “한-우크라이나 공동언론발표문.” <https://www.korea.kr/briefing/speechView.do?newsId=132035431>. (접속일 : 2024.06.05)

정부부처합동. 2022. 우크라이나 국가협력전략문서

한국국제협력단. 2022. 우크라이나 국가지원계획(CP)문서

Anhel, Yevhen. 2023.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목표 및 자원 조달 방안 논의 동향” 전문가오피니언.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s://www.kiep.go.kr/aif/issueFileDownload.es?brdctsNo=348292&brdctsFileNo=84457>. (접속일 : 2024.04.06)

Apostu, Dragos. 2014.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ontribution To Democratic Governance In European Union.” Manager. Stakeholders and organizational dynamics. 120-129. Retrieved from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71138118_Civil_Society_Organizations'_Contribution_To_Democratic_Governance_In_European_Union. (접속일 : 2024.05.02)

Åslund, Anders, and Andrius Kubilius. 2023. Reconstruction, Reform, and EU Accession for Ukraine. Stockholm Free World Forum.

Blumenthal, Lilly, Caleb Seamon, Norman Eisen, and Robin J. Lewis. 2022. “History reveals how to get Ukraine reconstruction right : Anti-corruption.” Brookings. Retrieved from <https://www.brookings.edu/articles/history-reveals-how-to-get-ukraine-reconstruction-right-anti-corruption/>. (접속일 : 2024.04.06)

Boyce, James K.. 2007. “Post-Conflict Recovery: Resource Mobilization and Reconstruction” paper prepared for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DESA) Expert Group Meeting on Post-Conflict Recovery and Economic Insecurity, New York, 30 November 2007. Retrieved from https://www.un.org/en/development/desa/policy/wess/wess_bg_papers/bp_wess2008_boyce.pdf. (접속일 : 2024.04.12)

Call, Charles T and Vanessa Wyeth. 2008. Building States to Build Peace. Lynne Rienner Publication

Chandler, David. 2000. *Bosnia: Faking Democracy after Dayton*. Pluto Press.

Chernovol, Olha. 2024. "Two Years into the War in Ukraine: the Status of Anti-Corruption and the Challenges Ahead." posted on the website of the Corruption, Justice and Legitimacy Program in Feb. 2024. Retrieved from <https://www.corruptionjusticeandlegitimacy.org/post/two-years-into-the-war-in-ukraine-the-status-of-anti-corruption-and-the-challenges-ahead>. (접속일 : 2024.04.03)

Coleman, Isobel. 2004. "Post-Conflict Reconstruction: The Importance of Women's Participation." Testimony on Thursday, March 11, 2004.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in the United States. Retrieved from <https://www.cfr.org/report/post-conflict-reconstruction-importance-womens-participation>. (접속일 : 2024.03.06)

Darvas, Zsolt M., Marek Dabrowski, Heather Grabbe, Luca Léry Moffat, André Sapir and Georg Zachmann. 2024. "Ukraine's path to European Union membership and its long-term implications." Bruegel Policy Brief, 05/2024. Bruegel. Retrieved from <https://www.econstor.eu/bitstream/10419/294900/1/1885849036.pdf>. (접속일 : 2024.03.11)

Dobbins, James, Seth G. Jones, Keith Crane, Beth Cole DeGrasse. 2007. "The Beginner's Guide to Nation-Building." RAND Corporation. Retrieved from https://www.rand.org/content/dam/rand/pubs/monographs/2007/RAND_MG557.pdf. (접속일 : 2024.04.09)

Dorpinghaus, Erin. n.d.. "Sierra Leone: On the Road to Recovery. Central High School." Retrieved from https://www.worldfoodprize.org/documents/filelibrary/images/youth_programs/research_papers/2010_papers/CentralHS_DorpinghausErin_E14167991ECCE.pdf. (접속일 : 2024.05.20)

EBRD. 2023. "The war on Ukraine and its effect on human capital : early evidence and EBRD response." Retrieved from <https://www.ebrd.com/documents/admin/the-war-on-ukraine-and-its-effect-on-human-capital-early-evidence-and-ebrd-response.pdf>. (접속일 : 2024.05.03)

EC. n.d. "Neighbourhood,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strument multi-annual indicative programme (2021-2027)." Retrieved from https://neighbourhood-enlargement.ec.europa.eu/system/files/2022-01/C_2021_9351_F1_ANNEX_EN_V2_P1_1618650.PDF. (접속

일 : 2024.05.13)

EC. 2022.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European Council,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 Ukraine Relief and Reconstruction”. Retrieved from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52022DC0233>. (접속일 : 2024.04.06)

EC. 2023. “A New Ukraine Facility.” Retrieved from https://neighbourhood-enlargement.ec.europa.eu/document/download/d122882f-599b-4158-8a6b-583f5cfd77_en. (접속일 : 2024.04.06)

Friborg, Anders Tang. 2004. Afghanistan lessons learned from a post war situation. DIIS. Retrieved from https://www.files.ethz.ch/isn/18428/Afghanistan_Lessons_Learned.pdf. (접속일 : 2024.05.06)

Galeotti, Mark and Anna Arutunyan. 2023. “Peace and proliferation: The Russo-Ukrainian war and the illegal arms trade.” Global Initiative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Retrieved from <https://reliefweb.int/attachments/0f4baea1-36a3-4051-9ef2-beb4f76d28f5/Mark-Galeotti-and-Anna-Arutunyan-Peace-and-proliferation-The-Russo-Ukrainian-war-and-the-illegal-arms-trade-GI-TOC-March-2023.pdf>. (접속일 : 2024.05.13)

GIZ. 2011. “Ex-post evaluation 2010 – Brief report: Reintegration of ex-combatants in Sierra Leone.” Evaluation Unit. Retrieved from <https://www.oecd.org/countries/sierraleone/48885033.pdf>. (접속일 : 2024.05.13)

GIZ. 2023. “Rapid assistance and long-term prospects for Ukrainians.” Retrieved from <https://www.giz.de/en/downloads/giz2024-en-ukraine-factsheet-portfolio.pdf>. (접속일 : 2024.05.13)

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 2024. Transforming Education in Nicaragua. Retrieved from <https://www.globalpartnership.org/where-we-work/nicaragua>. (접속일 : 2024.04.06)

Government of Ukraine. 2024. “Ukraine Facility 24-27”. Retrieved from <https://www.ukrainefacility.me.gov.ua/wp-content/uploads/2024/03/ukraine-facility-plan.pdf>. (접속일 : 2024.03.28)

Grillot, Suzette. 2010. "Guns in the Balkans: controlling small arms and light weapons in seven Western Balkan countries" *Journal of Southeast European and Black Sea Studies* vol.10(2): 147-171.

Hogan, M. J. 1987. *The Marshall Plan: America, Britain, and the Reconstruction of Western Europe, 1947-1952*. Cambridge University Press.

Humanitarian Practice Network. 2008.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Humanitarian Exchange Magazine*, (39).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Retrieved from <https://odihpn.org/wp-content/uploads/2008/07/humanitarianexchange039.pdf>. (접속일 : 2024.03.28)

IIA. 2023. "2023 Annual Report: The State of High Tech" Jerusalem: Israel Innovation Authority. Retrieved from <https://innovationisrael.org.il/en/wp-content/uploads/sites/3/2023/07/2023-The-state-of-High-Tech.pdf>. (접속일 : 2024.03.28)

IISS. 2023. "The looming aftermath of war in Ukraine: connecting post-war recovery, security guarantees and domestic defence capabilities." Retrieved from <https://www.iiss.org/publications/armed-conflict-survey/2023/the-looming-aftermath-of-war-in-ukraine/>. (접속일 : 2024.04.06)

ISE. 2019. "Lessons from peacebuilding and reconstruction experience." Institute for State Effectiveness. Retrieved from <https://effectivestates.org/wp-content/uploads/2021/03/MENA-Lessons-from-Peacebuilding-and-Reconstruction-Experience-ISE.pdf>. (접속일 : 2024.05.13)

Kochladze, Manana. 2023. "The reconstruction of Ukraine: lessons from the post-war recovery in Bosnia and Herzegovina and Georgia." CEE Bankwatch Network. Retrieved from https://bankwatch.org/wp-content/uploads/2023/04/2023_04_14_The-reconstruction-of-Ukraine_lessons-from-the-post-war-recovery-in-Bosnia-and-Herzegovina-and-Georgia.pdf. (접속일 : 2024.04.06)

Kos, Drago. 2022. "War and Corruption in Ukraine." *Eucrim Issue 2/2022*: 152-157. Retrieved from <https://doi.org/10.30709/eucrim-2022-007>. (접속일 : 2024.05.13)

Landi, Emma. 2023. "The role of civil society in Ukrainian reconstruction." CSIS. Retrieved from <https://www.csis.org/blogs/development-dispatch/role-civil-society-ukrainian-reconstruction>.

(접속일 : 2024.04.20)

Leibtag, Frayda. 2024. "The pivotal Role of Private Capital in a Post War Economy" posted on Forbes website on 22 April, 2024, Retrieved from "<https://www.forbes.com/sites/forbescommunicationscouncil/2024/04/22/the-pivotal-role-of-private-capital-in-a-post-war-economy/?sh=4ed4c6167797>" (접속일 : 2024.05.02)

Meiners, Sophie. 2024. "Return and Reconstruction." DGAP Policy Brief. DGAP. Retrieved from <https://dgap.org/en/research/publications/return-and-reconstruction>. (접속일 : 2024.04.20)

Meo, Sultan Ayoub and Tehreem Sultan. 2023. "Brain drain of healthcare professionals from Pakistan from 1971 to 2022: Evidence-based analysis" Retrieved from <https://www.pjms.org.pk/index.php/pjms/article/view/7853/1787>. (접속일 : 2024.04.20)

Movchan, Veronika. 2023. "Ukraine: Preparation for the EU Accession Process" SCEEUS Report Series on Ukrainian Domestic Affairs, No. 6. Retrieved from <https://sceeus.se/en/publications/ukraine-preparation-for-the-eu-accession-process/>. (접속일 : 2024.04.15)

Myerson, Roger. 2023. "Postwar reconstruction assistance and local governments in Ukraine." Retrieved from <https://cepr.org/voxeu/columns/postwar-reconstruction-assistance-and-local-governments-ukraine>. (접속일 : 2024.04.06)

NRC. 2022. "Ukraine's National Recovery Plan." National Recovery Council (NRC). Retrieved from https://assets-global.website-files.com/621f88db25fbf24758792dd8/62c166751fcf41105380a733_NRC%20Ukraine%27s%20Recovery%20Plan%20blueprint_ENG.pdf. (접속일 : 2024.04.06)

OECD. 2008. "The Marshall Plan: Lessons Learned from the 21st Century" Paris: OECD. Retrieved from https://www.oecd-ilibrary.org/the-marshall-plan_5kzrb36rjqkc.pdf?itemId=%2Fcontent%2Fpublication%2F9789264044258-en&mimeType=pdf. (접속일 : 2024.05.13)

Ries, Charles P. and Howard J. Shatz. 2023. "Looking beyond the war : Planning for Ukraine's Reconstruction." RAND. Retrieved from <https://www.rand.org/pubs/commentary/2023/09/looking-beyond-the-war-planning-for-ukraines-reconstruction.html>. (접속일 : 2024.03.12)

Rubin, Barnett R. 2006. "Afghanistan's Uncertain Transition from Turmoil to Normalcy."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Retrieved from https://cdn.cfr.org/sites/default/files/book_pdf/Afghanistan_CSR.pdf?_gl=1*w3fice*_ga*MjAyOTE0OTM3NC4xNzE2OTYzMjU4*_ga_24W5E70YKH*MTcxNjk2MzI1OC4xLjAuMTcxNjk2MzMwMS4xNy4wLjA. (접속일 : 2024.03.12)

Sentama, Ezechiel. 2009. "Peacebuilding in Post-genocide Rwanda: The Role of Cooperatives in the Restora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Gothenburg: School of Global Studies, Peace and Development Research. Retrieved from https://gupea.ub.gu.se/bitstream/handle/2077/21377/gupea_2077_21377_5.pdf?sequence=5&isAllowed=y. (접속일 : 2024.03.12)

Serdyuk, Anna. 2023. "Ukrainian Gender Equality Commissioner declares women's economic inclusion and empowerment a national priority for country's peacebuilding and recovery" UN. Retrieved from <https://ukraine.un.org/en/237705-ukrainian-gender-equality-commissioner-declares-women%E2%80%99s-economic-inclusion-and-empowerment>. (접속일 : 2024.04.06)

Sopko, John F. 2021. "The Risk of Doing the Wrong Thing Perfectly." SIGAR. Retrieved from <https://www.sigar.mil/pdf/lessonslearned/SIGAR-21-41-LL-Executive-Summary.pdf>. (접속일 : 2024.05.13)

Sopko, John F. 2023. "SIGAR Analysis of How Lessons from Rebuilding Afghanistan May Be Applicable to the Current Situation in Ukraine." SIGAR. Retrieved from https://www.sigar.mil/pdf/spotlight/2023-07-07-SIGAR-Letter-to-Sens-Kennedy_Sinema_Cramer_Braun-Re-Lessons-Learned.pdf. (접속일 : 2024.05.13)

Sperl, Stefand and Machtelt De Vriese. 2005. "From emergency evacuation to community empowerment: Review of the repatriation and reintegration programme in Sierra Leone (EPAU/2005/01)."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Unit. Retrieved from <https://www.unhcr.org/sites/default/files/legacy-pdf/420b80384.pdf>. (접속일 : 2024.04.16)

Strand, A. and Gunnar Olesen. 2005. "Humanitarian and reconstruction assistance to Afghanistan, 2001-2005: A review." Chr. Michelsen Institute. Retrieved from <https://www.cmi.no/publications/2047-humanitarian-and-reconstruction-assistance-to#pdf>. (접속일 :

2024.05.06)

Thier, A. and Jarat Chopra. 2002. "The road ahead: Political and institutional reconstruction in Afghanistan." *Third World Quarterly*, 23(5), 893-907. Retrieved from <https://doi.org/10.1080/0143659022000028594>. (접속일 : 2024.04.16)

TNH. 2006. "Sudan: Donor support key to post-war reconstruction." Geneva: The New Humanitarian (TNH). Retrieved from <https://reliefweb.int/report/sudan/sudan-donor-support-key-post-war-reconstruction>. (접속일 : 2024.03.11)

Todd, Nell, Joniel Sung-Jin Cha, and Joe Mariani. 2022. "The reconstruction of Ukraine: Historical lessons for postwar reconstruction of Ukraine." Deloitte. Retrieved from <https://www2.deloitte.com/us/en/insights/industry/public-sector/ukraine-reconstruction-plan.html>. (접속일 : 2024.03.11)

UN. 2023. "UN in Ukraine: Transitional Framework September 2022-December 2024." Retrieved from <https://ukraine.un.org/en/download/158239/266221>. (접속일 : 2024.04.18)

UNHCR. 2022. "Ukraine Situation. Global Report 2022." Retrieved from <https://reporting.unhcr.org/ukraine-situation-global-report-2022>. (접속일 : 2024.03.18)

UNHCR. 2023. "Education on Hold: Almost half of school-aged refugee children from Ukraine missing out on formal education." Retrieved from <https://www.unhcr.org/neu/112763-education-on-hold-almost-half-of-school-aged-refugee-children-from-ukraine-missing-out-on-formal-education.html>. (접속일 : 2024.04.06)

UNICEF. 2023. "Education Survey Reveals Impact of War on Ukraine's Students." Retrieved from <https://www.unicef.org/ukraine/en/press-releases/international-education-quality-research>. (접속일 : 2024.05.13)

UN Women. 2021. "Gender-inclusive peace processes: Strengthening women's meaningful participation through constituency building." Retrieved from <https://www.unwomen.org/sites/default/files/Headquarters/Attachments/Sections/Library/Publications/2021/Proceedings-Gender-inclusive-peace-processes-en.pdf>. (접속일 : 2024.05.06)

USAID. 2005. "Community-focused reintegration." USAID/DCHA/OTI. Retrieved from https://pdf.usaid.gov/pdf_docs/PNADF305.pdf. (접속일 : 2024.05.06)

USAID. 2023. "Ukraine Response : USAID/Ukraine Adjusted Its Internal Processes and Strategies to Support Recovery Goals for Ukraine." Retrieved from <https://oig.usaid.gov/sites/default/files/2023-10/8-121-24-001-P.pdf>. (접속일 : 2024.04.06)

USAID. 2024. "Ukraine CDCS 2019-2026." Retrieved from https://www.usaid.gov/sites/default/files/2023-06/Ukraine_CDCS%202019-2026_EXTERNAL.pdf. (접속일 : 2024.04.27)

Wessel, David and Elijah Asdourian. 2022. "What lessons do past international efforts at rebuilding war-torn countries hold for organizing the reconstruction of Ukraine?" Brookings. Retrieved from <https://www.brookings.edu/articles/what-lessons-do-past-international-efforts-at-rebuilding-war-torn-countries-hold-for-organizing-the-reconstruction-of-ukraine/>. (접속일 : 2024.04.27)

WHO. 2022. "Guide to health workforce development in post-conflict environments." Retrieved from https://www.who.int/docs/default-source/documents/publications/guide-to-health-workforce-development.pdf?sfvrsn=befcd0ab_1. (접속일 : 2024.04.27)

Wisotzki, Simone and Ulrich Kühn. 2022. "Crisis in arms control: An introduction." Zeitschrift für Friedens- und Konfliktforschung, 10(3), 183-194. Retrieved from <https://doi.org/10.1007/s42597-022-00074-8>. (접속일 : 2024.04.02)

World Bank. 1998. "Post-conflict reconstruction: The role of the World Bank"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Retrieved from <http://documents1.worldbank.org/curated/en/175771468198561613/pdf/multi-page.pdf>. (접속일 : 2024.05.15)

World Bank. 1999. "Aid coordination and post-conflict reconstruction: The West Bank and Gaza experience." Précis, (185). Washington D.C.: World Bank. Retrieved from https://documents1.worldbank.org/curated/pt/552931468778231850/016824232_200309274015827/additional/multi0page.pdf. (접속일 : 2024.05.15)

World Bank. 2005. "Reshaping the future: Education and Postconflict Reconstruction" Retrieved

from <http://documents1.worldbank.org/curated/en/860731468138857154/pdf/344190PAPER0Re101OfficialUseOnly1.pdf>. (접속일 : 2024.05.15)

World Bank. 2020. "Ukraine growth study: Faster, lasting, and kinder." Retrieved from <https://documents1.worldbank.org/curated/en/543041554211825812/pdf/Ukraine-Growth-Study-Final-Documents-Faster-Lasting-and-Kinder.pdf>. (접속일 : 2024.05.15)

World Bank. 2023. "Ukraine - Third Rapid Damage and Needs Assessment (RDNA3) : February 2022 - December 2023 (English)." Washington, D.C. : World Bank Group. Retrieved from <http://documents.worldbank.org/curated/en/099021324115085807/P1801741bea12c012189ca16d95d8c2556a>. (접속일 : 2024.03.06)

OECD 통계 홈페이지 <http://stats.oecd.org>

키예프경제대학연구소 홈페이지 <http://kse.ua>

우크라이나 복구 계획 홈페이지 <https://recovery.gov.ua>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 홈페이지 <http://urc-international.com>

BMZ 홈페이지 <https://www.bmz.de/en/countries/ukraine>

KOICA 직원 인터뷰. 2024.04.16.

USAID 직원 인터뷰 2024.05.29.

EU 직원 인터뷰 2024.06.04.

연구자료

연구교육 2024-05-118

